

종교개혁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르네상스 연극:

반(反)스페인주의, Shakespeare, 그리고 Calderón¹⁾

이 증 속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 서 언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글은 16, 17세기 영국의 연극에 대한 두 가지 '정설'에 대한 반응이다. 그 하나는 계몽주의 시대가 생산해 낸 것으로 16, 17세기의 영국과 스페인에서 비슷한 경향의 연극이 발흥했다는 설이다. 다른 하나는 우리 시대가 생산해 낸 것으로 16, 17세기의 영국 연극은 당대 역사에 대한 깊은 관심의 산물로서, 당대 역사를 절대 왕정의 궁정 정치 세력과 신흥 자본주의와 함께 등장한 새로운 반대 세력간의 권력 투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설이다.²⁾ 영국 르네상스기의 연극을 영국뿐 아니라 유럽이라는 커다

1) 이 연구는 1997년 한국 학술 진흥 재단의 학제간 연구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완성한 것임.

2) 계몽주의 시대의 '정설'은 Shakespeare 연극의 '원시성'이 스페인 "황금시대"의 연극, 특히 Calderón과 Lope de Vega의 연극 탓이라고 지적하면서, 스페인 연극과 Shakespeare 사이의 관계를 "영향" 관계로 정의한 Voltaire에 의해 대변된다. 우리 시대의 '정설'은 맑스주의를 비롯한 여러 갈래의 역사주의적 논의의 산물이다. 예컨대 Perry Anderson이 엮어 내는 유럽의 대서사(grand narrative)—봉건제에서 자본주의체로의 전이와 국민 국가 형성의 대서사—에 의지하여 영국과 스페인의 르네상스 연극을 비교 분석하는 Walter Cohen, *Drama of a Nation: Public Theatre in Renaissance England and Spain* (Ithaca, NY: Cornell UP, 1987)이나, 절대 왕정과 신흥 자본주의 세력 사이의 '권력 투쟁'을 영국사의 절대적 동기로 규정하는 Jonathan Dollimore,

란 지도(전자가 유럽의 문화 양식적 '지도'에 주목한다면, 후자는 유럽의 정치, 경제적 '지도'에 초점을 맞춘다 할 수 있을 터인데) 속에 그려 넣으려 시도하는 이들 '정설'은 둘 다, 흥미롭게도, 당대 유럽의 '지도'를 재편성한 사건인 종교 개혁을 누락하거나 간과 혹은 축소하고 있는데, 종교 개혁은 사실 16, 17세기에 영국과 스페인에서 발달한 연극의 전유럽적 위치를 결정한 요소라는 게 이 글의 주장이다. 다시 말해 영국 르네상스기의 연극을 당대 유럽의 지도 속에 그려 넣으려 할 때 정말 중요한 지표는 종교 개혁이라는 대 사건이고, 그게 시발점이 되어 적어도 200년 동안은 영국인의 의식과 무의식을 지배한 반천주교주의(Anticatholicism), 반스페인주의(Anti-Hispanism)라는 집단 정서다.

Shakespeare, Calderón, Lope de Vega가 모두 고전주의적 원칙을 무시하고 희극과 비극을 한데 섞어 역사극을 만들어 냈다면, 이들의 유사성은 (Voltaire가 지적하는 대로) 이들 문학이 상대적으로 "원시적"인 단계에 있었거나, 그 원시성을 어느 한 편이 다른 한 편으로부터(Shakespeare가 스페인 황금시대의 작가들로부터) 배워 왔기 때문이라는 식의 설명은 역사극이 유럽의 여러 국가들 중에서도 유독 이 두 국가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의 문화사적, 역사사적 의미를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없다. 그 유사성의 원인은 오히려 영국과 스페인이 공동으로 체험했던 현실, 즉, 이들 나라가 이 기간 동안(1585-1604) 종교

Radical Tragedy: Religion, Ideology and Power in the Drama of Shakespeare and His Contemporaries, 2nd ed. (New York; London: Harvester Wheatsheaf, 1989)를 보라. 이들의 논의를 따른다면 영국은 당대 유럽의 위기를 가장 첨예하게 경험한 나라가 아니라 유럽 대륙을 사로잡고 변화시켰던 구체적인 사건이나 문제들에 별로 영향받지 않은 나라, 문자 그대로 섬나라가 되고 만다. 예컨대 신세계의 발견과 경영이라는 당대 최대의 사건은 탈/식민주의 담론 연구라는 특정 공간으로 추방당하고, 당대 유럽의 모든 면모를 지배한 지배 동기였던 종교의 문제는 이상주의적, 본질주의적 휴머니즘과(이들의 해석을 따르면, 천주교를 끝내 버리지 않고 몰래 믿은 당대 영국 작가들에게서 주로 발견되는) '전복적, 진보적, 회의적, 과학적, 경험주의'의 갈등으로 추상, 번역, 왜곡되어 형해만 남아 있는 형국이 되고 마는 것이다. 마치 당대 유럽과 영국의 역사가 절대 왕정, 국민 국가 형성, 국가주의의 발생, 자본주의의 발흥 등 몇 마디 안 되는 판에 박힌 설명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듯이 말이다.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적대 관계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에서 발견될 수 있다.³⁾ 요컨대 영국의 종교 개혁과 함께 시작된 이 두 국가 사이의 적대 관계가 이들로 하여금 당대의 역사적 진행에 대해 강한 관심을 갖게 하고 그 관심을 표현하는 매체로서 역사극을 만들어 내게 했다면, 그들이 만들어 낸 역사극은 또한 문학을 통하여 영국과 스페인의 충돌에 가담하는 국가적 문화 제도로 기능하였던 것이다. 사실 16, 17세기 영국의 역사극은 당대 유럽의 “위기”(종교적 변혁과 그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정신적 “위기”)에 대해 스페인의 역사극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다. Calderón은 Shakespeare와 마찬가지로 영국의 종교 개혁에서 소재를 빌어 오지만, Shakespeare의 개신교적 해석과는 달리 전형적인 천주교적 해석을 제공한다. Lope의 극작품들은 스페인의 제국주의적 전통과 스페인의 숙명적 세계 지배라는 신화에 대한 믿음을 담고 있는 반면, Shakespeare를 비롯한 영국 르네상스기의 연극은 그 신화에 대한 영국적 거부 반응을 강하게 표출한다. 스페인 연극이 스페인의 유럽 제패에 대해 긍정적이라면, 영국 쪽은 스페인 중심의 유럽 질서에 대한 전복적 상상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서로 적대적인 이 두 나라의 작가들은 같은 시대적 문제에 반응하되 서로 적대적인 대답을 마련했으며, 그 대답을 통해 충돌하였던 것이다.

이들의 형식적 유사성이 사실은 이들 국가의 충돌 과정에서 생산되어 그 충돌을 증거한다면, 그리고 그 충돌의 연유가 종교적 갈등에 있다면, 르네상스 시대의 영국 연극에 대한 우리 시대의 정설, 혹은 우리 시대가 이들 연극

3) John Clyde Loftis 같은 학자들은 이 유사성이 영국과 스페인의 상호 교류로 인해 생긴 게 아니라 중세 연극의 민중적 전통과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고전적 경향이 결합하여 이루어 낸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런 식의 문화 양식적 설명만으로는 유사성의 의미를 제대로 짚어 낼 수 없다. 그 설명은 직접적 영향 관계나 문화 양식의 전승 또는 결합에서보다는 오히려 이들 연극을 생산케 한 역사적 토양, 즉 이 두 국가의 역사적 관계와 당대 유럽이 전체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던 혁명적인 변화들, 특히 종교 혁명, 신세계 발견, 국가주의의 발흥과 같은 변화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Loftis의 책 *Renaissance Drama in England and Spain: Tropical Allusion and History Plays* (Princeton, NJ: Princeton UP, 1985) 참조.

에서 확인한 맑스주의적 공식, 즉 르네상스 시대의 역사는 절대주의와 신흥 자본주의의 대립이라는 공식을 어떤 식으로 조정해야 할지 자명해진다. 16세기 유럽에서는 종교야말로 국가주의를 뜻하는 단어라는 Sir Lewis Namier의 말을 새삼 음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⁴⁾ 사실 16, 17세기 영국의 연극이 누렸던 대중적 인기는 이 매체가 Henry 8세의 종교 개혁 이후 거의 모든 영국인들의 마음을 지배하였던 걱정, 즉 종교와 국가라는 문제를 표현하고 분석하는 힘을 가지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었을 현상 중의 하나다. Luther의 종교 혁명 이후 유럽인들에게 종교의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의식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천주 교회와 개신 교회 중 어느 쪽이 진정한 교회인가의 문제는 자신의 사후 영혼의 행방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특히 종교 개혁 이후 개신교 국가로 남게 된 영국의 경우 종교의 문제는 개인적 영혼의 문제였을 뿐 아니라 국가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였으며, 당대 영국인들에게 개인적 영혼의 문제는 국가의 운명과 불가분으로 얽힌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에게는 스페인과 같은 천주교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조국을 지키는 일이 곧 자신들이 진정한 종교요 유일한 영혼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 개신 교회를 지키는 일이었다. 요컨대, 당대 영국에서는 종교적 정체성과 국가적 정체성의 문제는 동일한 문제였으며, 정치뿐 아니라 연극을 포함한 당대의 모든 문화, 언술 행위를 지배한 관심사였다. 실로 당대 연극은 종교가 곧 국가임을 대중에게 선전하기 위한 국가적 문화 제도로서 발달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16, 17세기 영국에서 발달한 연극은 한 마디로 종교 개혁에 대한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영국과 스페인의 적대적 관계의 시발점인 영국의 종교 개혁으로부터 시작하여 Calderón의 *La cisma de Inglaterra*와 Shakespeare의 *Henry VIII*

4) 최근에 그 점을 설득력 있게 지적한 Debora Shuger의 말대로, 종교야말로 “the master-code of pre-capitalist society”며, “the cultural matrix for explorations of virtually every topic”이라고 할 수 있다(Shuger, *Habits of Thought in the English Renaissance: Religion, Politics, and the Dominant Culture*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90], pp. 5-6, 9).

에 이르는 스페인과 영국의 문학적 충돌, 문학을 통한 충돌, 혹은 문학을 통해 표현된 문화적 충돌을 상세하게 추적해 볼 생각이다. 이 글의 초점은 그래서 스페인보다는 영국에 맞춰져 있고 영국 작품들의 연대를 기본적으로 따를 것이다.

2. 종교 개혁과 역사 다시 쓰기 :

Bale과 반스페인주의의 시작

16, 17세기 영국과 스페인의 “충돌”은 Henry 8세가 Anne Boleyn과 결혼하기 위해 스페인 왕이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Charles 5세의 이모 Catherine과의 이혼을 결심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사건은 그제 사랑 때문이었던, 후사를 확보하기 위한 교육지책이었던, 아니면 Henry 자신이 내세운 것처럼 형수와 결혼한 게 못내 마음에 걸려서였던 간에, Henry 개인이나 Tudor 왕가라는 당초의 맥락을 훨씬 넘어서는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의의를 갖는 사건이었다. Henry의 이혼 결심은 교황의 주권을 부인하고 국왕의 지상권을 주장하는 1534년의 선언(the Act of Supremacy)으로 이어져서, 영국 종교 개혁의 실마리가 되었을 뿐 아니라 스페인과의 관계를 협조에서 충돌로 바꿔 놓은 사건이었으며, 영국의 국민 국가 형성의 시작을 기록하고, 영국에 근대를 불러들인 역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이다.⁵⁾

Henry의 국왕 지상권 주장은 다른 무엇보다 영국이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중세 세계 제국의 이념적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Henry는 그런 주장을 통해 교황으로 대변되는 전통적 가치와 권위에 대한 거부를 공식적으로 표현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황뿐 아니라 다른 모든 기존 권위에 대한 불신과 도전이 가능함을 보여 주었으며, 그리하여 결과적으로는 종교 혁명에 이은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은

5) *Documents of the English Reformation*, ed. Gerald Bray (Cambridge: James Clarke & Co., Ltd., 1994), pp. 113-15.

셈이었다. Henry의 이혼은 자신의 의도나 희망과는 별 상관 없이 영국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시대를 불러들인 것이다. 따라서 Henry의 종교 개혁은 한편으로는 교황제로부터의 분리를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왕의 권위를 강화하고 신성화하는 이중의 작업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이중의 작업은 칼과 창이 아니라 펜과 혀를 사용한 전쟁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 선전전의 우선적 목표는 영국의 대중에게 종교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 즉 교황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대체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대중화하여 그것을 새로운 정설로 굳히는 작업이었다. 당대에 발달한 인쇄술과 교회의 강단을 통한 이 대규모 대중 조작 사업의 제 1단계는 교황과 교황 제도에 대한 적개심 불러일으키기였다. Thomas Cromwell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 선전 사업은 교황제적 입장에서 해석되고 기록된 이제까지의 영국 교회의 역사를 '거꾸로' 써서 교황제의 몰락과 종교 개혁의 필연성을 증명하는 데 주력하였다. 기존의 역사를 다시 쓰기 위하여 이들이 차용한 이념적 필터는 계시록 해석의 전통이었다. 이 전통에 의하면, 계시록은 인류의 역사를 선과 악의 지속적 싸움으로 파악하는 한편, 그 싸움이 신의 개입으로 언젠가 끝날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그 날의 도래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그 날이 가까이 왔다는 확신을 표현하는 문서였다. 영국 개신교의 이론가들은 이 계시록이 표현하는 말세론에 역사 의식을 결합하고, 신의 역사의 연대표가 영국 역사의 연대표와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였다. 이 작업을 위해 그들이 특히 의지한 계시록 해석법은 중세의 이단들이 사용한 해석법이었다. 중세의 성서 주해자들은 요한 계시록에서 영원한 파멸의 이미지로 사용된 바빌론(Babylon)과, 요한 1서 2:18과 요한 2서 1:7에만 언급된 적그리스도(Antichrist)에 관심을 집중하고, 적그리스도가 말세를 알리는 징조로서 악의 세력의 화신이라고 해석하였다. 중세의 이단자들은 이 해석을 차용하여 교황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였다. 이들 이단은 용이 지옥에 갇혀 있었던 기간인 예수 탄생으로부터 교황 Sylvester 2세에 이르는 천년을 제외하면(요한 계시록 20:1-3), 인류의 역사란 선과 악의 대결의 역사였고, 특히 교황제로 대

표되는 적그리스도의 화신들이 소수의 참된 신도들을 박해하는 역사였지만, 이것은 예수 재림과 새로운 예루살렘(Jerusalem)의 도래와 함께 끝날 것이며, 그 날이 오면 초기 교회의 순수한 신앙이 다시 부활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처럼 적그리스도를 교황으로 풀이하는 전통은 또한 중세 독일의 *The Play of Antichrist*(1160년경), Chester Cycle 기적극(miracle play), Langland의 *Piers Plowman* 등 14세기 유럽의 대중 문학을 통해 널리 알려진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적 이미지를 이용하여 교황제 교회를 거짓된 교회라 공격하는 동시에 그들로부터 박해당하는 자신들을 참된 교회라 내세우는 전략은 Luther를 비롯한 대륙의 종교 개혁파들도 사용한 것이었다.

영국의 개혁파들은 중세의 이단자들이나 대륙의 종교 개혁파들의 적그리스도 해석을 차용함으로써 이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한편, 정통 기독교 전통을 재해석하고 공격할 수 있는 도덕적, 이념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중세의 천주 교회와 그것을 계승한 당대의 로마 천주 교회는 어둠의 세력이고, 자신들은 단순히 그들만을 상대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둠의 세력과 그 근원인 사탄과 대결하는 것이라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로마 천주교도들은 적그리스도의 무리요 바빌론 창녀의 애새끼들이며, 자신들은 이들과 싸우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saint)라고 내세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위치를 설정한 영국 개혁파들이 자신들의 개혁 투쟁이야말로 로마 교회라는 '미신'을 발본색원하고 그 자리에 진정한 복음을 심는 일로서 우주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생각한 것은 따라서 당연한 일이었다.⁶⁾

이 우주적 투쟁의 최전선에서 싸웠고 Henry 시대 최고의 종교 개혁 이론가였던 John Bale은 영국의 교회와 사회사의 중요 사건들에서 계시록적 의미를 찾아 내는 작업을 통해 계시록적 역사관을 영국 종교 개혁기의 이념적 필터

6) 적그리스도 논의는 1536년에 시작된 Thomas Cranmer의 반교황 선전전에 본격적으로 이용되었다. Christopher Hill은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 논의의 용도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Throughout the period 1530-1640, then, except for a challenge in the last few years, the identification of Pope and Antichrist won very general support in the Church of England" (*Antichrist in Seventeenth-Century England* [Oxford: Oxford UP, 1971], p. 40).

로 만든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다. Henry 말기에 Cromwell의 몰락과 그에 이은 Henry의 반동적 탄압을 피해 대륙으로 피신한 Bale은 그곳에서 *The image of bothe churches*(1541-47)를 썼다.⁷⁾ 이 책에서 Bale은 예수의 탄생에서 세상의 종말에 이르는 교회사를 계시록의 7개의 봉인으로 상징되는 7단계의 역사 진행으로 풀이했다. Bale은 이 책자에서 교황은 적그리스도이며, 적그리스도와 그의 바빌론이 멸망하고 용이 다시 천년 동안 묶이게 될 제 7봉인 개봉의 날이 임박했는데, 그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려 주는 가장 확실한 전조는 자신과 같은 진정한 신도들이 박해당하고 유배당하는 당대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을 통하여 Bale은 인류 역사의 흐름, 특히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관류하며 서로 대립해 온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하고 로마 교회를 거짓 교회로 규정하는 한편, 개혁 교회를 참 교회라 선언할 뿐 아니라 교황의 필연적 멸망과 개혁 교회의 궁극적 승리를 예언한 것이다. 이 주장이 겨냥하고 있고 또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것은 개혁 교회에 전통과 역사성을 부여하는 일이다. 참 교회가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 존재했다고 주장함으로써 Bale은 전통적 권위에 도전하는 따라서 전통적 권위를 결핍한 개혁 교회에 인류 역사 전체라는 전통의 무게를 부여할 수 있었고, 이제까지의 교회 역사를 ‘거꾸로’ 쓸 수 있는 이론적 기틀을 만들 수 있었다. Bale의 ‘거꾸로’ 쓴 역사를 통해 로마 교회의 역사는 신이 선택한 순수하고 참된 교회를 박해한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되고, 박해당하는 개혁 교회는 참 교회의 유구한 역사에 편입되어 순식간에 로마 교회만큼이나 유구한 전통을 지닌 것으로 내세울 수 있게 된 것이다. 로마 교회 역사를 개혁 교회가 송두리째 전유한 것이다.

영국 교회를 로마 천주 교회로부터 분리하려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Bale은 기독교의 영국 전래에 대한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 냈다. 속설과는 달리 예수의 복음은 아리마대의 요셉(Joseph of Arimathea)와 사도 빌립보(Philip)의 제자들이 영국에 맨 처음 전파했고, Lucius 왕이 영국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Saxon족 침략자들에 의해 탄압을 당하였고, Augustine

7) 원래 제목은 *The image of bothe churches after the moste wonderfull and heavenly Revelacion of Sainct John the Evangelist*로, R. Iugge에 의해 London에서 출판되었다.

이후에는 로마 교황의 앞잡이들에 의해 노략질을 당했으며, Norman족 침입 후에는 수사와 예수회 수사들의 행패를 견뎌야 했다. 그러나 영국의 왕들은 그들의 압제에 저항하고 그들의 부패와 싸웠으며, Wyclif, Gower, Chaucer, Tyndale, Frith, Bilney 등과 같은 위대한 스승들이 출현하여 진정한 신앙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영국 교회사에 대한 체계화된 해석을 펴내기 전에 Bale은 이미 ‘거꾸로’ 바라본 역사를 연극의 형태로 표현한 적이 있었다. 여기서도 *Image*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모습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다. 원래 Carmel회 수사였던 Bale은 William Tyndale의 영향을 받아 1530년대 중반에 개신교로 개종하고 Thomas Cromwell의 후원 아래 몇 편의 희곡을 썼다. 교황이 영국 왕에게 가한 변절, 배반의 사례를 골라 뽑아 도덕극(morality play)으로 만든 이 작품들은 영국 최초의 역사극들이다. 이 중 *King Johan*은 Tyndale이 1528년에 쓴 *Obedience of a Christen Man*에 나오는 John 왕에 대한 언급을 1538년 극화한 것으로 Thomas Cranmer의 저택에서 초연되었는데, Richard Morinson의 개혁을 선전하는 새로운 종류의 놀이가 필요하다는 주문에 대한 응답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⁸⁾ 왜 Bale이 John 왕의 사례를 선택했는지 짐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Obedience*에서 Tyndale은 이미 John의 이야기를 교황제에 대한 공격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는 John 왕의 사례야말로 교황에 대한 충성심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근본적으로 상치됨을 잘 보여 주는 예라고 지적한다: “Did not the legate of Rome assoyle all the lordes of the realme of their due obedience which they oughte to the kyng by the ordinance of God?” (fol. 157r-v). 교황의 도배는 영국이 몽땅 망할지라도 자기네의 명분을 위해서라면 반란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교황파 역사가들은 역사조차도 교황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왜곡했는데, John 왕에 대한 이제까지의 평가가

8) Tyndale의 텍스트로는 *The Obedience of a Christen man and how Christē rulers ought to governe . . .* 이라는 제목으로 Antwerp에서 출판된 초판본을 사용하였고, Bale의 작품의 현대 판본으로는 Barry B. Adams, ed., *John Bale's King Johan* (San Marino: The Huntington Library, 1969)을 사용하였다.

나뉘었던 것은 모두 그 때문이라는 것이다. Tyndale의 이런 주장은 그 자체로서 개혁파의 눈으로 역사를 다시 쓰는 작업이었거니와 Bale이 앞으로 취할 방향을 제시해 준 셈이다.

과연 Bale은 *King Johan*에서 “국가”라는 키워드로 교황제가 의미하는 바를 풀어낸다. Bale은 극의 중심을 Innocent 3세가 John 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Stephen Langton을 대주교로 임명한 사건에 모으고, 교황이 왕권을 짓밟은 이 사건의 의의를 신학적인 견지에서가 아니라 영국 사회의 일체감과 정치적인 안정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비판한다. John과 Innocent 3세의 대결이 Henry 8세의 종교 개혁에 대한 선구적 예로서 제시되고 John은 영국을 위해 싸우다 죽은 순교자로 봉해지는 것이다. 사실 John과 교황의 투쟁은 이 작품이 초연된 1538년 당시 Henry 8세가 처한 입장을 가장 실감나게 설명해 주는 사화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Henry를 파문하는 교황령이 내려지고 Henry와 교황의 갈등은 영국 전체의 문제로 커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King Johan*은 도덕극(morality play)의 양식을 차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도덕극과는 달리 인간 영혼의 구원과 같은 문제를 다루거나 기독교적인 진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중세 도덕극의 대표작인 *Everyman*의 보편적이고, 비역사적이며, 기독교적인 세계와 비교할 때 *King Johan*이 보여 주는 세계는 특정적이며, 역사적이고, 세속적이며 정치적이다. 이 도덕극에서는 알레고리로 등장한 인물들이 끝까지 알레고리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역사적이고 특정적인 정치적 인물로 변한다. 알레고리의 보편적 세계가 Bale에 의해 재해석되고 다시 쪼여져서 문자 그대로 역사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Sedition*은 극 한가운데서 어느새 Stephen Langton으로 변하고, *Private Wealth*는 Cardinal Pandulphus로, *Usurped Power*는 교황 Innocent 3세로 바뀐다. 그런가 하면 역사적 인물은 현재에 대해 말해 주는 역사적 알레고리임이 드러난다. England는 1538년 당대의 영국과 다르지 않음이 드러나고, 교황에게 패배하고 끝내는 수사에 의해 독살당하는 John의 순교자적 모습은 Henry 8세를 나타내는 *Imperyall Majesty*의 득의 만만하고 위엄에 가득 찬 목소리에 의해 대체되는 것이다. 중세의 허구적 알레고리처럼 보이던 것이

역사적 사실임이 밝혀지고, 중세의 역사가 가지는 당대적 의미가 드러나는 순간, 이 도덕극의 당대적이고 정치적인 역할은 더할 나위 없이 명백해진다. Bale은 John의 예를 교과서로 삼아 Henry 8세에게 교황과 어떻게 싸워야 할지 가르치는 한편 Henry 8세가 주도한 종교 개혁이 영국의 국가적 복지를 위한 정당한 선택이었음을 선전하는 것이다.⁹⁾

영국 역사에 대한 이런 해석은 영국 종교 개혁기의 또 다른 중요한 테마를 탄생시키는 순간이기도 했다. 이제까지의 영국 역사를 박해받고 확대받은 참된 교회의 역사의 편에 놓음으로써 영국 국민이야말로 세상을 천주교라는 미신으로부터 구출하여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이끌어야 할 운명을 타고 태어난 “선택받은 국민”(the Elect Nation)이라는 신화가 탄생된 것이다.¹⁰⁾ 신과 영국의 관계는 신과 이스라엘(Israel)의 관계가 되고, Henry 8세는 다윗(David) 혹은 솔로몬(Solomon)이 되며, London은 예루살렘이 된다. 다시 말해, 영국 종교 개혁의 이론가들은 계시록적 인류 역사와 영국의 운명을 한데 묶음으로써 종교 개혁의 혁명적 에너지가 국가 권력과의 투쟁으로 흐르는 것을 막고, 그것을 국가 권력의 옹호, 국가주의, 외국 혐오로 바꿔 놓을 수 있었다. 종교 개혁은 이제 교황제에 대한 강한 반감을 의미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국 종교 개혁의 이념이 보여 주는 이와 같은 국가주의적 경사는 로마 천주 교회에 대한 반감이 주로 격렬한 반스페인 정서라는 통로를 통해 분출되도록 만들었다. 영국의 국가주의는 유럽 최대의 제국이자 천주 교회의 맹주로서 중세적 세계 제국의 이념을 표방하고 세계의 주인(*dominus mundi*)임을 자처하는 스페인과의 충돌을 불가피한 것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반스페인주의는 특히 Mary

9) 이 점에 대해서는 Andrew Hadfield, *Literature, Politics and National Identity: Reformation to Renaissance* [Cambridge: Cambridge UP, 1994], p. 78참조 : “Bale has conflated the whole of national history into the idealised self of the monarch and the implication is that just as the devil's history can be written as a series of lives of the popes or English votaries, so can God's history be written as a series of lives of Protestant saints and good rulers”

10) William Haller, *Foxe's Book of Martyrs and the Elect Nation* (London: Jonathan Cape, 1963), pp. 224-50 참조.

여왕 시대에 스페인 종교재판(Inquisition) 방식의 탄압을 거치는 동안 굳어졌고, 그후 Elizabeth 여왕 재위 동안 상존했던 개신교 분쇄 위협이 스페인이라는 실체를 통하여 현상했기 때문에 더욱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 1588년의 스페인 함대의 영국 침공과 그 격퇴는 영국의 반스페인주의와 국가주의를 동시에 정당화해 주는 사건이었다. 요컨대 스페인이라는 존재는 천주 교회가 종교뿐 아니라 국가도 위협하는 것임을 증명해 주는 구체적인 적이었던 것이다.

3. 종교 개혁과 국가주의 :

Geneva 성경, Foxe의 *Book of Martyrs*, 그리고 반스페인주의의 전개

Bale과 John Foxe를 비롯해서 Richard Cox, Edmund Sandys, John Ponet, Edmund Grindal 등 Mary 여왕의 탄압을 피해 Strasbourg, Zurich, Frankfurt-am-Main, Basel, 또는 Geneva에 집결한 망명객들은 주로 출판사에서 교정을 봐 생계를 유지하며 성경의 영어 번역과 교회사 집필에 열중하였다.¹¹⁾ 이 때 대륙에서는 마침 Matthias Flacius Illyricus가 Magdeburg에서 새로운 Luther교 역사를 집필하고 있는 중이었다. 역사 다시 쓰기가 유럽 대륙에서도 한창이었던 것이다. 영국 망명객들이 쓴 역사는 Henry 8세 말기의 망명객들(Tyndale, Frith, Barnes, Bale)이 세운 전범을 따랐다. 그러나 Henry 시대의 망명객들과는 달리 이들이 염두에 둔 독자는 영국의 국왕이 아니라 영국의 대중이었다. Mary가 갑작스레 회개하여 개신교로 개종하는 기적이 일어나리라 희망할 수 없었던 이들은 영국 대중의 마음 속에 Edward 시대의 모습이 살아 남아 있도록 그들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데 정력을 기울였다. 영국 대중의 기억으로부터 개신 교회가 사라지지 않는 한, 영국에 개신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자신들도 그곳으로 돌아 갈 수 있는 희망이 남아 있다고 생각했기 때

11) Strasbourg는 Sleidan, Peter Martyr의 친구가 많이 있었던 곳이었고, Zurich는 Bullinger의 근거지였으며, Frankfurt-am-Main에는 Melancton이 있었고, Basel에는 Oporinus의 출판사가 있었다.

문이다. 그래서 이들이 쓴 역사는 영국의 국왕을 향한 훈계나 간언이라기 보다는 영국의 대중에게 개신 교회를 선전하는 책자였던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런 점에서 이들에게 역사서 집필과 성경의 영어 번역 작업은 동일한 의미를 갖는 작업이었다. 성경 영역이 영국 대중으로 하여금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역사서 집필은 영국 대중에게 개신 교회의 정당성과 궁극적 승리에 대해 직접 이야기하기 위한 작업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보면, 이 시기에 이들이 대면해야 했던 문제는 종교 개혁 초창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뿌리 깊이 박힌 전통의 권위를 뒤엎고 새로운 권위를 심어야 하는 작업, 대중의 신앙 체계를 갈아치우는 작업, 대중의 귀를 선점하는 작업, 즉 선전전의 문제였다. 따라서 이들이 그 문제를 성경의 대중화, 성경 독점 반대 투쟁, 대중 문화에 개신교 정착시키기의 투쟁으로 이해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Mary 시대에 탄생한 순교자들은 그런 선전을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새로운 종교의 신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새로운 종교의 새로운 순교자 열전을 그릴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까지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해 준 셈이다. Elizabeth가 왕위에 오른 바로 다음 해인 1559년에 Foxe가 Grindal이 보내 준 자료를 정리하여 Basel에서 라틴어판 *Actes and Monuments*를 서둘러 내고 1563년에는 다시 London에서 영어판을 출판한 것은 모두 그런 선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¹²⁾

Mary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Elizabeth 여왕이 즉위하자, 이들 모두 망명 생활을 끝나고 영국으로 되돌아 가 중요한 위치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그리고 끝이어 이들이 번역한 영어 성경(물론 the Great Bible, Matthew Bible, Geneva Bible 등 변모 과정을 거치지만)은 물론이고 이들이 쓴 역사서, 특히 Foxe의 *Actes and Monuments*가 이 시대의 실질적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잡게

12) John Day에 의해 출판된 *Actes and Monuments of these latter and perilous dayes, touching matters of the Church* (1563) 참조. 그러나 인용문은 S. R. Cattle가 1837년에 출판하고 나중에 Rev. Josiah Pratt이 편집한 8권 짜리 현대 판본을 따랐다 (Rev. Josiah Pratt, ed., *The Actes and Monuments of John Foxe* [London, 1877]).

된다. 1571년 대주교구 회의(Convocation)가 “모든 대주교와 주교는 자기 집에 최근 London에서 출판된 바 있는 제일 큰 『성경책(the holy Bible)』과 『순교자 열전』이라는 제목의 자세하고 완벽한 역사책을 구비하여야 한다. . . . 또한 모든 교회의 주임 사제도 같은 책들을 구입하여 대성당의 편리한 곳에 비치 해서 교구 목사나 국교회의 다른 목사 또는 손님이나 이방인도 쉽게 접근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Foxe의 책은 영어 성경과 함께 명실공히 영국 국교회의 새로운 경전으로 편입된 것이다.¹³⁾

영어 성경과 Foxe의 책은 Bale의 역사 해석이 종교와 국가/정치를 얼마나 밀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잘 보여 준다. 사실 영국의 종교 개혁은 애초부터 국왕 지상권의 주장이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있었고 Tudor 시대에 이루어진 선전전의 성공 여부는 ‘왕권’이라는 말을 어느 정도나 ‘국가’라는 말에 근접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와 왕권의 보호가 그대로 국가의 보호로 ‘번역’될 수 있는지 여부에 선전전의 성패가 달려 있었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Tudor 선전전은 대외적일 뿐 아니라 대내적인 것이었다. 이 대내적 선전전에 완벽하게 들어 맞는 책이 바로 영어 성경과 Foxe의 책이었다. 영어 성경과 John Foxe의 *Actes and Monumentis* 는 Bale의 계시록적 역사 해석을 르네상스 영국의 의식 세계에 깊이 각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Wyclif는 인간이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성경을 통해서라고 믿었기 때문에 신자라면 누구나 성경을 직접 읽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다. Tyndale 역시 “성경이 모국어로 번역되어 그들 앞에 놓이지 않으면, 평신도들에게 어떤 진실도 가르칠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¹⁴⁾ 이들에게 종교

13) “Every Archbishop and bishop shall haue in hys house *The holy Bible* in the largest volume, as it was lately printed at London, and also that full and perfect history, which is intituled *Monumentes of Martyres*. . . . [the same bookes be purchased by euery Deane and] bestowed in his Cathedrall Church, in such conuenient plice, that the vicares . . . and other ministers of the Church, as also straungers and forieners may easilie come vnto them, and read theron” (*A Booke of certaine Canons, concernyng some parte of the discipline of the Church of England* [London, 1571], A3v).

개혁은 성경 읽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거니와, 영어 성경의 광범위한 배포는 로마 교회의 성경 독점에 대한 항거일 뿐 아니라 로마 교회로부터의 분리를 성취하는 국가주의적 의의 또한 지니는 것이었다. 1560년대에서 1640년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영국에서 가장 널리 통용된 성경은 Geneva 성경이었다. 이 성경은 William Whittingham, Miles Coverdale, John Knox 등의 공동 작업으로 완성된 것으로, 1560년 영국에서 출판되어 1576년경에는 영국 전역에 널리 유포되었고, Elizabeth 시대에만 90번이나 인쇄되었으며, 1644년까지 계속 출판되었다. 이 성경은 애초에 광범위한 배포를 염두에 두고 기획되었기 때문에 간편한 4절판본으로 디자인되었으며, 일반 신도들이 성경을 읽고 스스로 해석하는 것을 돕기 위한 장치로서 지도와 용어 색인, 주석이 첨부됐고, 각 장은 내용 요약으로 시작되고 절로 나뉘어 있었다. 게다가 이 성경은 값이 싸서 1568년에 나온 주교 성경을 물리치고 영국의 “국민 성경” 또는 “영국의 거울(Englands Looking-Glasse)”이 될 수 있었다.

한 마디로 Geneva 성경은 이 기간 동안 강력한 문화 제도였다. 이 성경의 대중화는 곧 이 성경이 담고 있는 교리와 이념의 대중화를 의미했다. 예컨대 Geneva 성경의 요한 계시록에 붙여진 주석은 Calvin적일 뿐 아니라 Heinrich Bullinger와 John Bale의 책자로부터 따 온 것으로, 종교 개혁의 이념을 유포하는 데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다.¹⁴⁾ 계시록 13장의 주석은 첫째 짐승이 로마

14) Tyndale의 말은 H. Wheeler Robinson, ed., *The Bible in Its Ancient and English Versions* (Oxford: Clarendon, 1940), p. 156에서 재인용한 것으로, 원문은 다음과 같다: “I had perceived by experience, how that it was impossible to establish the lay-people in any truth, except the scripture were plainly laid before their eyes in their mother tongue, that they might see the process, order, and meaning of the text.” 성경 번역과 배포의 역사와 그에 얽힌 문제에 대해서는 이 책과 Christopher Hill, *The English Bible and the 17th-Century Revolution* (London: Penguin, 1993)을 참조할 것.

15) Paul Christianson, *Reformers and Babylon: English Apocalyptic Visions from the Reformation to the Eve of the Civil War* (Toronto: U of Toronto P, 1978), p. 39 참조: “The notes on the Revelation, then, fits squarely into the mainstream English protestant interpretation of the reformation. The Reformation represented that spiritual conflict of the latter days prophesied by St. John. It opened the way for the imminent return of

제국이고 둘째 짐승이 첫째의 권위를 몽땅 삼켜 버렸는데, 그 둘째 짐승은 교황을 뜻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또한 Geneva 성경은 오직 사도 요한(John)의 서한에만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를 계시록 13장의 둘째 짐승과 데살로니가 후서 2:3-9에 언급된 “신의 성전에 신으로 앉아 있는” “최악의 인간(the Man of Sin)”, “떨망의 아들”과 동일시하는 해석을 채택하고, 이 셋 모두 교황을 의미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데살로니가 후서 2:3-9에 붙여진 주석은 Geneva 성경의 반교황제 정서를 잘 대변해 준다: “All men know who he is that saith he can shut up heaven and open it at his pleasure, and took upon him to be Lord and Master above all kings and princes, before whom kings and princes fall down and worship, honouring that Antichrist as a God.”¹⁶⁾ 위에 인용한 반교황제적 발언이 잘 보여 주듯, 이 성경이야말로 영국 교회가 로마 교회로부터 분리되는 것과 국왕의 지상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치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Christopher Hill이 영어 성경 일반에 대한 말은 Geneva 성경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vernacular Bible became an institution in Tudor England, the foundation of monarchical authority, of England’s protestant independence, the text-book of morality and social subordination.”¹⁷⁾

그러나 영어 성경의 보급은 무엇보다 신이 영어로 말하고 영국 사람이라는 생각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도록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John Aylmer가 자신의 책자 *An Harborowe for faithfull and true subjects*의 여백에 써 넣은 유명한 말 “God is English. For you fight not only in the quarrel of your country but also chiefly in defence of His true religion and of His dear son Christ”는 그대로 Geneva 성경의 번역자들이 영국 대중에게 전파하고자 했던

Christ and his final annihilation of popery—“The overthrow of the beast and his [supporters] which shall be accomplished at the second coming of Christ” (Rev. XIX: 20).”

16) Hill, *Antichrist*, p. 4에서 재인용.

17) *The English Bible*, p. 4.

말이기도 하였다.¹⁸⁾ 실제로 신이 영국 사람이거나 영국이 신의 사랑과 보살핌의 특별한 대상이라는 이야기는 이 시대 전체를 통해 수 없이 반복되었다. 제네바 성경은 번역자들의 의도대로 영국인들에게 자신은 “신이 선택한 인민 (His people)”이라는 확신을 심어 주는 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¹⁹⁾

영어 성경이 만들어 낸 대중 문화와 언어—성경이 제공한 공통의 이미지와 언어—가 실제 역사에서 어떤 일을 수행하였는지 잘 보여 주는 것이 Foxe의 *Actes and Monuments*다. Mary 여왕 시대에 개신교를 고수하다 화형당한 개신교의 순교자들의 행적이 중심을 이루는 이 책은 반천주교주의의 교과서라 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 담긴 반천주교주의는 로마 천주 교회에 대한 적개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국 ‘국가주의’의 맹아를 보여 준다. 로마 교회의 악마적인 악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에서는 그대로 단일 군주제의 성스러운 가치에 대한 이야기로 ‘번역’되기 때문이다. Foxe는 반천주교적인 이야기를 통해 교황제를 물리치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서 왕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훌륭한 개신교 군주야말로 모든 구악을 뿌리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Foxe는 그런 군주의 전범을 Constantine 대제의 행적에서 발견했으며, Elizabeth 여왕이 제 2의 Constantine 대제가 되기를 소망했다. Foxe에게는 강한 군주야말로 악의 화신인 용을 사슬에 감아 지하 세계에 가둘 수 있는 용 사냥꾼(dragon-slayer)이자 메시아였던 셈이다. 그래서 Foxe의 성자전은 로마 교회와 같은 국제적 조직의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인지 강조하는 한편, Constantine 대제 이래로는 로마 교회가 아니라 국가의 역사가 곧 참 교회의 역사였으며 신의 역사였다고 주장한다. 국가를 참 교회로 규정하고 로마 교회는 이를 탄압하는 적 그리스도적 거짓 교회라고 파악하는 Foxe의 이 새로운 교회사는 Bale의 계시

18) John Day에 의해 1559년 4월 26일 London에서 출판되었다.

19) 요한 계시록과 다니엘서가 실제 영국의 의식에 끼친 영향이 과대 평가되었다고 생각하는 연구로는 특히 Patrick Collinson, “Biblical Rhetoric,” in *Religion and Culture in Renaissance England*, ed. Claire McEachern and Debora Shuger (Cambridge: Cambridge UP, 1997), p. 19 참조.

록적 구도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동시에, 영국 개신교도들의 순교의 고통이야말로 그들이 참되고 신의 특별한 가호를 받는 선택된 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역설한다. 이렇게 국가의 역사를 교회의 역사로 '번역'하고 영국 개신교의 운명을 영국이라는 국가의 운명으로 파악할 때, 영국 역사의 정점은 스페인 함대의 격퇴라고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급진적 개신교가 어떻게 국가주의와 결합하여 외국 혐오증, 더 나아가 제국주의로 변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 준다고 하겠다.

Foxe가 개신교의 순교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성경의 영어 번역과 성경의 만인 소유다. 영어로 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곧 로마 교회와 로마 교회가 수 세기 동안 누려 온 신의 말씀 독점권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Foxe는 라틴어 성경이 아니라 영어 성경을 인용하면서 종교 재판에 임하는 술한 개신교 순교자의 모습을 통해 누가 신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누가 '진짜' 신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지가 문제임을 보여 준다. 영어 성경의 소유가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가르는 경계가 되는 것이다. 영어로 번역된 신의 말씀이 곧 참된 교회의 증표라는 논리의 다음 단계는 물론 신은 영어로 말하는 영국 '사람'이라는 말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로마 교회는 영국 국민이 '영국 사람'인 신을 직접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국가적이고 국민적인 적이 되는 셈이다. 그렇게 볼 때, Foxe 책의 중심을 이루는 Mary 여왕 시대의 탄압기가 또한 이 책 전체를 통해 로마 교회의 압제를 가장 직접적이고 선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점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몸이 녹아 기름으로 변하고 머리가 뚝 떨어져 나가는가 하면, 하체는 타고 상체는 그을렸으나 그래도 생명이 남아 기도하는 영국 개신교도들의 수난의 모습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상세하고 길게 묘사하는 것은 요컨대 교황이 인간을 번제의 희생양으로 바치는 잔인 무도하고 야만적인 이교도이고, 적그리스도이며, 영국민을 탄압하는 폭군임을 증언하고자 함인 것이다.

그러나 Foxe의 이야기가 보여 주는 또 다른 그림—그렇지만 국가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열심히 가리고 있는 그림—은 개신교의 근원적 개혁 정신 또는

혁명 정신이다. 이에 대해서는 당대의 대중 전체가 아니라 엘리트층이 주로 혁명적이었고 이들 엘리트가 대중에게 혁명 정신을 불어 넣으려 한 것이라는 설명도 가능하지만, Foxe의 이야기는 엘리트들의 저항뿐 아니라 여자를 포함한 상당수의 대중이 그들과 함께 행동했음을 보여 준다. 기존 권위에 대한 단호한 거부하는 이들 대중 순교자가 어김 없이 보여 주는 특징적 태도이기도 하다. 사실 당대 영국처럼 교회가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종류의 사회에서는 종교를 개혁하려는 어떤 시도도 그 사회의 구조에 대한 개혁 노력으로 '번역'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아주 근본적인 의미에서 전복적일 수밖에 없다. 요컨대 그런 사회에서의 종교 투쟁은 기존 구조의 억압에 대한 개혁 투쟁으로 변할 가능성을 언제나 안고 있다는 말이다. Foxe의 교회사는 참된 교회의 억압사지만, 동시에 참된 교회로 대변되는 사람들의 사회 혁명 노력에 관한 역사이기도 하다. 또 그렇기 때문에 Foxe의 책은 군주에 대한 저항을 선동하는 책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제나 내포하고 있었다. 종교와 정치가 동일시될 때, 종교는 정치를 바라 보는 눈이고, 정치에 대해 발언하는 통로이며, 현실 군주의 권위는 신의 길을 따르는 한에서만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이 사회적 변동이 있을 때마다—청교도 혁명(the English Civil War)이 일어난 1641년이라든가 계승 배제안 위기(the Exclusion Crisis) 직후인 1684년에—재발행되어 왕(또는 더 흔하게는 왕을 둘러싼 신하들)이 신의 정도를 벗어났음을 간접적으로 꾸짖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 또한 그런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는 바이다. Mark Goldie의 말대로 “usurping clergy”가 “usurping crown”이 되고 “godly king”이 “royal Antichrist”가 되는 것은 사실 시간 문제였던 셈이다.²⁰⁾ Foxe의 책이 개혁을 주장하고 중세 전통의 권위를 부인하면서 도 국내적인 전복과 내란의 가능성을 봉쇄할 수 있었던 것은 계시록적 역

20) Mark Goldie, “Priestcraft and the Birth of Whiggism,” in *Political Discourse in Early Modern Britain*, ed. Nicholas Phillipson and Quentin Skinner (Cambridge: Cambridge UP, 1993), p. 214 참조: “The Whigs steadily secularized an eschatological drama, inherited from John Foxe. It was a vision in which the temporal sphere, whether embodied in a Godly prince or a Godly people, gradually asserted its rights against the pretensions of a usurping clergy.”

사 해석과 국가의 운명이라는 비장의 패를 한데 묶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4. 반스페인주의의 정치적 의의 :

Elizabeth 시대의 대중 출판물

앞서 논의한 대로 영국의 반천주교주의는 엘리트층의 자극과 지휘 없이 대중에 의해 자발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한 정서는 분명히 아니었다. 이 정서는 적어도 종교 개혁 초창기에는 위로부터 시작된 종교 개혁을 정당화하고 대중을 반천주교 운동에 동원하기 위해 조직된 지극히 정치적인 선전전의 산물일 뿐이었다. 그러나 반교황 정서 혹은 반천주교주의는 1558년에서 1660년까지의 대중 출판물에 가장 빈번히 표현된 지배 정서였다. 게다가 이들 출판물의 저자들이 어느 한 계층에 한정된 것도 아니었다. 요컨대 Elizabeth 시대에 있어 반교황 정서는 일종의 대중적인 제도요, 집단 의식의 중요한 일부였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선전 문학이 사용한 교황의 이미지는 Henry 8세 시대로부터 내려 온 것으로서 교황은 “바빌론의 창녀(the Whore of Babylon)”요, “적그리스도”란 말로 요약될 수 있다. 교황제 교회란 인간에 불과한 교황이 전통과 권위의 힘을 빌어 그리스도의 자리를 가로채고 인민을 우상 숭배로 이끄는 술책이요, 그 술책을 창녀의 치장으로 감춰 타락하고 무지한 인민을 미혹하는 반(反)종교라는 것이다. 반천주교적 선전 문학은 특히 성직자들의 남색 탐닉을 예로 들어 천주 교회의 정신적, 도덕적 타락을 공격하였다. 이런 식의 원색적 공격이 대중의 심리를 조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했다. 첫째, 반천주교적 선전 문학은 로마 천주 교회에 대한 이런 선정적인 이미지들을 유포하여(예컨대 Foxe의 *Actes and Monuments*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은) 천주 교회의 정신적 타락과 육체적 타락을 서로 환치 가능한 것으로 만든 다음, 이렇게 타락한 교회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타락한 하층민이라는 암시를 교묘하게 덧붙

임으로써 계급적인 명예심을 자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천주 교회와 개신 교회를 말세론적 대결 구도로 풀이함으로써 천주 교회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타락을 넘어서는 선택, 즉 국가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고 참된 교회가 승리하는 세상 종말의 날의 도래를 지연하고 역사를 다시 과거로 돌리는 어마어마한 선택이라는 생각을 주지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Elizabeth 시대의 반천주교적 선전 문학은 이런 식으로 개신교도들의 집단 의식을 만들어 냈으며, 교황의 '영국 개신교 분쇄 음모'를 대중적 단결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 교황제가 역설적으로 영국의 개신교도들을 함께 뭉치게 하고 자신들 스스로를 감독케 하는 '타자(他者)'의 역할을 수행한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황제는 영국 종교 개혁의 추동력이었으며, 그게 없었다면 영국의 '청교도'도 영국이라는 '국가 개념'도 발명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역설적 해석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반천주교주의의 정치적 의의 혹은 역할을 좀 더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교황제 반대 선전이 갖는 이념적인 압력의 강도는 그 선전에 동원된 교황제의 이미지가 영국 개신교도들이 느끼는 긴장과 불안을 어느 정도나 표현하고 담아 내며 때로는 통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서, 반교황제 선전 문학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일탈 또는 '타자'의 이미지 그리기, 또는 유형화 작업은 자신의 사회가 변화 중이거나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일종의 마녀 사냥 혹은 희생양(pharmachos) 사냥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다. 교황제는 그런 사냥의 대상이 되기 안성 맞춤이었다. 교황제가 군주 국가에 가하는 근본적인 위협은 교황권이 왕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한다는 데 있다. 교황제의 위협은 교황이 교황권의 우위를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사하려 할 때, 예컨대 교회가 세계 제국을 지향하며 개별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려 하지 않을 때, 훨씬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교황권 우위 주장은 국내적으로 볼 때 중대한 통치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다. 국민이 갖는 국왕에 대한 충성심을 토대로부터 침식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John 왕이나 Henry 8세, 또는 Elizabeth 여왕이 경험한 바와 같이 교황과 국왕이 서로 대결할 경우, 교황권 우위 주장은 신하가 교

항 편에 서서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자신의 군주를 폐위하고 파문할 권리를 주장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Elizabeth 시대의 개신교도들이 가지고 있던 외국의 침략에 대한 공포는 조그만 자극에도 아주 쉽게 반천주교적 공황으로 과장 번역되어 대중 폭력과 우상 파괴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사실 Henry 8 세와 Elizabeth의 절대 왕권 주장은 부분적으로 교황의 왕권 무시에 대항하여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의 종교 개혁 자체가 교황의 재판권 주장에 대항한 국왕의 지상권 주장과 함께 시작했듯이, 영국의 종교 투쟁은 결국 국가적 맥락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1538년의 Henry 8세 파문과 1570년의 Elizabeth 파문이나 교황령에 의한 불복종과 반란의 합법화, 예수회 수사들의 Elizabeth 살해 음모나 스페인 합대의 영국 침공 등은 모두 로마 천주 교회는 왕을 폐위하고 살해할 권리를 주장하는 위험한 세력일 뿐 아니라 원천적으로 국가라는 개념에 적대적인 세력임을 확인시켜 주는 사례들이었다. 종교의 언어로 무장한 일련의 사건이 영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만들어 내는 데 기여한 것이다. 교황제는 실로 개신교적 영국의 일체성을 해치는 모든 것에 대한 총칭이었던 것이다.

종교 투쟁과 국가주의의 결합을 자극했을 뿐 아니라 그 결합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영국의 유별나게 맹렬한 반스페인 정서(Anti-Hispanism)다. 교황에 대한 적대감이 스페인이라는 존재에서 그 구체적인 적의 형상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아메리카 대륙을 식민지화하고 유럽 대륙의 대부분을 병합한 당대 스페인야말로 교황의 대리로서뿐 아니라 세계 제국을 꿈꾸는 제국주의적 세력으로서 영국의 존재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외세였기 때문이었다. 사실 반스페인 정서는 영국과 스페인의 고유한 관계에 의해 생산된 정서이기 전에 유럽 개신교 전통의 일부였다. 스페인에 대해 가장 지독한 공격을 퍼부은 바 있는 William of Orange나 Antonio Peréz 등은 스페인이라는 국가보다는 Philip 2세를 겨냥했지만, 스페인은 사실 모든 개신교 국가의 증오의 적이었다. 그렇지만 영국의 유별난 반스페인주의는 국가주의라는 맥락에서만 설명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스페인이야말로 영국에 근대를 가져오고 국가적 단결과 국가주의의 형성을 가능케 한 국가적 '타자'라고 할 만하다. 스페인이 당대 유럽 개신교의 마지막 요새인 영국을 침공하여 상속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Mary 여왕의 사망 후, Mary, Queen of Scots가 스코틀랜드로 귀환한 후, 혹은 교황이 Elizabeth를 파문한 후 영국인들의 마음을 졸곧 지배해 온 불안이었다. 이 불안감은 적극적으로 반스페인 정책을 추구하는 지식인 정치가 집단을 탄생시켰고, 반스페인 정서를 담은 수 많은 국제적 선전 책자를 생산했다.²¹⁾ 이 책자들은 이 시대의 반스페인주의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잘 보여 준다. 예컨대 *The Spanish Masquerade* (London, 1589)에서 Robert Greene은 스페인이 보여 주는 정치적 폭력성은 스페인이라는 국가가 정신적 암흑 상태에 빠져 있다는 증거요, 그런 스페인이 의도하는 것은 영국인의 조국과 종교를 모두 없애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Greene이 지적하는 스페인의 정치적 폭력성과 정신적 암흑은 이 시대 반스페인주의적 선전의 양대 주제를 이루는 것으로서, 스페인이 아메리카를 식민지화하면서 저지른 만행을 고발하는 형식을 띤 소위 "black legend" 책자에서 가장 극적으로 표현된다.²²⁾ 한편 James Aske (*Elizabethan Triumphans*, 1588)나 George Peele (*Descensus Astraea*, 1591)에 의하면, 영국은 스페인의 바로 그런 암흑에 대항하고 그것을 물리치는 빛이며, Elizabeth 여왕은 오래 전에 지상을 떠난 정의의 여신 아스트리아(Astraea)가 재림한 정의의 현신으로서 새로운 황금 시대의 도래를 예고한다고 선전한다. 즉 Elizabeth 여왕은 낡은 율법을 숭상하는 천주 교회의 미신과 무지의 어둠을 물리치고 빛과 새로운 율법을 세상에 가져 오는 메시아적 지도자라는 것이다.

Peter Lake가 근대 초기 유럽의 문화—고급 문화와 대중 문화 모두—를 특징짓는 사고 방식이라고 지적한 바 있지만, 이분법적 논법이야말로 반스페인

21) 이종숙, 「르네상스 영국에서의 Tacitus와 타키투스주의」, 『西洋 古典學 研究』 9 (1995): 242-70 참조.

22) William S. Maltby, *The Black Legend in England: The Development of Anti-Spanish Sentiment, 1558-1660* (Durham, NC: Duke UP, 1971) 참조.

주의 또는 반천주교주의적 선전의 현저한 양태다.²³⁾ 교황제 대(對) 참된 종교라는 일차적 이분법이 어둠/빛, 불의/정의, 복수/자비, 무지/지식, 위선/진리 등의 또 다른 이분법을 생산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구약의 율법(Old Law)을 의미하던 비판적 상징들—암흑, 육체, 형식, 죽음—모두가 이번에는 천주 교회와 스페인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물론 천주교는 과거의 것이고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며, 미래는 오직 새로운 교회에만, 특히 영국에만 있다는 논리다. 이 선민 의식이 아주 쉽게 제국주의로 이행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었다는 사실은 별다른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당대의 개신 교회는 천주 교회를 칠 수 있는 필수적인 기체로서 왕권을 찬양하였고, 왕권의 찬양은 국가주의적 맥락과 결합하였으며, 그것은 다시 아일랜드에서의 잔인한 식민주의와 아메리카 등지에서의 해외 자본주의로 표현된 것이다. 결국 16, 17세기의 반스페인/반천주교주의는 영국의 근대화와 국가주의뿐 아니라 제국주의를 정당화해 준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다.

5. *The Spanish Tragedy*와 반스페인주의

Bale이 종교 개혁의 효과적인 선전 도구이자 자신의 역사관을 표현하는 매체로서 연극을 선택한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었다. 다시 말해 중세의 도덕극이 역사화되었을 뿐 아니라 역사로서 기능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논의를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King Johan*이 역사극이라는 장르를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작품의 관심의 초점인 국가의 문제는 그대로 1580년대 역사극들이 탐구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작품이 보여 주는 종교의 국가적 의의, 국가주의적 이념의 종교적 틀과 같은 커다란 문맥 외에도, 영국민을 선민으로 파악하고, 외국인이나 외국의 영향을 받은 사람을 적그리스도로 규정하며, 왕의 역할을 종교 지도자로 생각한다는지, 복잡한 역사적

23) Peter Lake, "Anti-popery: The Structure of a Prejudice," in *Conflict in Early Stuart England: Studies in Religion and Politics 1603-1642*, ed. Richard Cust and Ann Hughes (London: Longman, 1989), pp. 72-106.

인물을 개신교적 선악의 유형으로 바꿔 놓고, 극의 중심을 영국의 운명을 둘러싼 선악의 대결로 만들며, 기사도적 알레고리와 계시록적 이미지를 사용하는 등의 세부적 특징이 이후의 역사극, 특히 Tudor기의 역사극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 작품이 개척하고 있는 역사로서의 연극의 기능, 문학적 재구성을 통해 역사를 다시 해석하는 기능이야말로 이후 영국 역사극의 영역이었던 것이다.

물론 Bale이 연극을 선전전의 매체로 선택한 이유는 이 매체의 대중성이었다. 문자를 해독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메시지 전달이 가능할 뿐 아니라, 연극 특유의 활동적 시각 이미지와 이야기 형식은 선전 메시지의 호소력을 배가하며, 연극의 집단 연희적 특성은 집단 의식을 만들어 내기에 가장 적합한 매체였던 것이다. Athens의 Dionysus제의 연극 경연이 시민 의식을 만들어 내기 위한 종교/정치적 의식이었던 것처럼, Bale의 연극 또한 집단이 공유하는 언어, 신화, 의식, 가치를 버려 내는 용광로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종교 개혁 초창기에 연극이 담당했던 역할은 Foxe가 다음과 같은 칭송의 말로 잘 묘사해 주고 있다: “[P]layers, printers, and preachers be set up of God, as a triple bulwark against the triple crown of the Pope, to bring him down, as, God be praised, they have done meetly well already” (VI, p. 57).

1530-1540년대에 Bale이 연극에 부여했던 역할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 특히 개신교와 개신교 국가가 위기에 처한 순간이야말로 “a triple bulwark against the triple crown of the Pope”로서의 연극의 힘이 명확해질 뿐 아니라 요구되는 순간이었다. Mary 여왕 시대의 개신교 탄압이 반천주교주의와 스페인에 대한 두려움과 적대감을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면, 반천주교주의/반스페인주의는 교황 Pius 5세의 Elizabeth 여왕 파문이 있었고 스페인 함대의 영국 침공설이 사실로 변해 가던 1580년대에는 정점에 이른다. 반천주교/반스페인주의는 스페인 함대 격퇴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다가 1600-1603년에는 Elizabeth 여왕의 후사에 대한 불안과 함께 다시 고조되어서, James 1세가 스페인과 화약을 맺은 1604년과 몇몇 광적인 천주교도가 James 1세와 의회를 폭파하려 한 Gunpowder Plot이 있었던 1605년에 이르러서는 다

시 한 번 격렬하게 폭발하였다. 반천주교/반스페인주의가 폭발할 때마다 극장은 표현과 토론의 장을 제공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르네상스 영국의 연극은 반천주교/반스페인주의라는 대중적 집단 정서에 의해 형성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중 1588년에 정점에 이르는 소위 ‘스페인 함대’ 위기를 전후해서 쏟아져 나온 반스페인, 반천주교, 애국주의적 연극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 시기에 씌어진 연극 중 애국주의를 노골적으로 표현하지도 않거나와 실제 역사에 바탕을 둔 역사극이라고 할 수도 없는 Thomas Kyd의 *The Spanish Tragedy*가 담고 있는 강한 반스페인 정서는 스페인인이 의미하는 바가 영국 연극사의 전개에 미친 심대한 영향을 말해 주는 훌륭한 예이다.

Philip Edwards는 이 작품의 제작 연대를 대략 1580년대 후반 혹은 1590년대 초로 잡으면서도 이 작품이 ‘스페인 함대’ 위기에 대한 반응임을 부정한다: “Kyd is innocent of contemporary allusions. . . . Kyd must have been trying to avoid verisimilitude. . . . We must take it that Kyd was writing a revenge play, and that he wanted (or his source gave) war between two countries for its setting, and that he chose Spain and Portugal without much thought of the real Spain and the real Portugal. When he came to write Hieronimo's pageant, he was prepared for a moment to cater for English patriotic feeling, but he placed the needed effect of keeping his play at a distance from contemporary events and preserving the unhistorical flavour of his play” (xxv).²⁴⁾ 그러나 이 작품이 시사적인 언급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Revenge*의 등장인 스페인 함대의 영국 침공 당시 영국의 전함 중 하나였던 *Revenge*호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1580년에 있었던 Philip 2세의 포르투갈 병합에 대한 영국의 반응을 1막 4장에서 Hieronimo가 설명하는 무언극에서 읽는 것도 매양 불가능한 일이 아닐 뿐 아니라, 4막 4장에서 Hieronimo가 연출하는 “여러 말

24) Edwards가 편집한 Revels 판본, *The Spanish Tragedy* (London: Methuen, 1959)의 Introduction, p. xxv 참조.

로 된 연극”이 묵시록적 Babylon에 대한 언급이며, 따라서 스페인의 부패와 붕괴를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사성은 당대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묘사만을 통하여 획득되는 것은 아니다. 이 작품의 시사성은 오히려 ‘스페인 함대’ 위기에 대한 대중적 반응, 즉 격렬한 반스페인주의를 잘 포착하고 극화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볼 때 복수극의 효시인 이 작품이 복수와 비극을 구태여 스페인이라는 지역과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점이나 이 작품이 영국 16, 17세기 전체를 통해 최대의 박스 오피스 히트를 기록했으며, 이후 르네상스 비극 전반에 걸쳐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이 시대 특유의 집단 정서인 반스페인주의와 관련된 것임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²⁵⁾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The Spanish Tragedy*라는 제목 자체가 거의 자동적으로 이 작품을 당대의 반스페인 정서와 연결한다는 점이다. 관중을 이 작품의 의미로 인도하는 Ariadne의 실타래로서 ‘스페인’이라는 말이 제공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다. 그렇게 보면, 반스페인주의의 흔적은 너무나 역연하다. 작가는 살인과 복수가 법을 대신하는 나라를 그려 내고 그것을 ‘스페인’이라고 부른 다음, 얼마나 무시무시한 저주가 그 땅에 내려지는지 보여 준다. 작품 안의 스페인의 타락에 대한 작가의 ‘사형 언도’는 ‘스페인’이라는 이름을 매개로 하여 작품 밖의 스페인에도 내려진다. 반스페인주의가 이 이상 명백하고 확고할 수가 없다.

그 부분을 좀 더 살펴 보자. 이 작품에 속속들이 배어 있는 반스페인주의의 중요 전달 수단은 Seneca적 연극 언어다. Seneca의 정치 비극은 지옥을 뚫

25) Philip Henslowe의 후원 아래 1592년과 1597년 사이에 29번 공연되었다. 네 곳의 극단에서 상연되었으며, 1633년 전에 적어도 9개의 판본과 증보판이 나왔고, 이 작품에 대한 수 많은—Claude Dandrap의 계산으로는 111번의—언급과 패러디가 이루어졌다. 가히 르네상스 최대의 인기작이라 할 수 있다. J. R. Mulryne, “Nationality, and Language in Thomas Kyd’s *The Spanish Tragedy*,” in *Travel and Drama in Shakespeare’s Time*, ed. Jean-Pierre Maquerlot and Michele Willems (Cambridge: Cambridge UP, 1996), pp. 87-88 참조.

고 지상으로 분출한 악령의 말로 시작된다. 악령이 만들어 내는 어둡고 절망적인 분위기를 통해 Nero의 타락과 폭정으로 더럽혀지고 무너져 가는 로마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다. Kyd는 Seneca적 서막의 형식을 차용함으로써 Andrea의 망령과 Revenge가 지배하는 이 세계가, Nero 치하의 오염되고 부패한 로마를 연상시키는 이 세계가 스페인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서막을 본 당대 관중이 무슨 생각을 했을지는 불문 가지다. 'Revenge가 지배하고 복수로 밖에는 정의를 구할 수 없는 나라가 스페인이다. 스페인에서는 복수가 삶의 방식이다. 복수는 구약의 율법(즉, 천주 교회)이고, 구약의 율법은 신약의 율법(즉, 개신교)에 의해 대체되는 게 신이 정한 역사다.²⁶⁾ 타락한 스페인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 스페인은 무너져 가고 있다' 등등 온갖 반천주교적 정서가 '스페인'이라는 꼬투리에 이끌려 줄줄이 엮이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Edwards처럼 이 작품이 당대 정치와 아무 상관 없는 순수 비극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이 작품이 정말 당대 스페인의 현실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한 반스페인주의가 이 작품의 원천을 이루고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볼 때 이 작품의 역사성은 분명해진다. 스페인의 역사적 현실을 보고한다는 초보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Kyd라는 작가의 '영국성(Englishness)'과 그가 속한 당대 영국 국민이라는 집단의 정서와 의식을 표현하고 증언한다는 의미에서의 역사성 말이다.

Kyd는 스페인의 정신적 암흑을 극화하기 위해 스페인 왕자 Lorenzo를 Elizabeth 시대의 대중적 두려움의 적이었던 Machiavelli적 인물로 만든다. 반스페인주의가 영국 연극사상 최초의 Machiavelli적 악당을 만들어 낸 셈이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Kyd의 Lorenzo는 스페인 외 유럽의 모든 궁정을 대변하도록 형상화되어 있지 않다. Seneca적 연극 언어가 일으키는 반항—부패한 정체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반폭군 연극—도 여기서는 유럽 전체의 군주제를 겨냥

26) 당대 영국인들이 복수에 대해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감안한다면 더욱 더 흥미로운 일이다. 사실 영국 복수극 중 배경이 영국인 것은 없다. 이 테리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Hamlet*은 기독교 이전의 덴마크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고 있지 않다. 반천주교주의와 반스페인주의의 넥서스가 그런 일반화를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Hieronimo의 “부질없는 분노”는 세상 모든 왕의 속성이 다 무심하기 때문에 부질없어지는 게 아니라, 스페인 왕이 특히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Dollimore처럼 이 작품을 “급진적인 비극”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이 작품이 그리는 세계에서 스페인 왕실의 이미지뿐 아니라 영국 왕실의 이미지를 찾아낼 수 있거나 이 작품이 표현하는 반천주교적 정서가 기독교 세계 전반에 대한 회의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²⁷⁾ 그러나 이 극은 그럴 여지를 별로 남겨 주지 않는다. 모든 정치적 비판이 스페인이라는 특수한 지역을 겨냥하여 이루어지고 그 ‘그릇’에 담겨 나오기 때문에 영국 사회에 대한 전폭적 비판으로 비화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단호하게 애국적인 발언이 된다. 기독교 전반에 대한 회의적 성찰 역시 이 작품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것 중의 하나다. 힘주어 강조되는 것은 스페인이라는 나라의 이교적 측면이기 때문이다. 스페인의 하늘을 지키는 것은 기독교 이전의 이교의 신들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타락을 이야기한다면 그 때의 기독교는 천주 교회, 즉 거짓된 교회를 의미할 뿐인 것이다.

Eugene D. Hill의 지적처럼 이 극은 Seneca적 복수극의 골격 속에 Vergil적 내용을 담고 있다.²⁸⁾ 특히 Andrea의 망령이 나타나 지하 세계의 지형도를 그리며 자신의 지하 여행을 이야기하는 서막은 *Aeneid* VI권에서 Aeneas가 죽은 아버지의 혼령을 만나러 지하 세계로 내려간 장면을 모방하고 있다. 그러나 Andrea의 지하 여행은 Aeneas의 여행과는 달리 새로운 나라의 건설이 아니라 조국과 살아 있는 자들에 대한 복수를 향한 여행이다. 다시 말해 Andrea의 지하 여행은 Aeneas의 영웅적 행위를 모방하면서도 Vergil의 서사시적 전망은 거부함으로써 스페인의 Seneca적 현실을 강조하고 풍자하는 기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당대 영국 관중의 입장에서는 Vergil의 전망이 스페인의 Seneca

27) *Radical Tragedy*, pp. 139-43 참조.

28) Eugene D. Hill, “Senecan and Vergilian Perspective in *The Spanish Tragedy*,” *English Literary Renaissance* 15 (1985): 143-65.

적 현실에 의해 굴절되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영국의 서사시적 운명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스페인의 현실이 Aeneas적 꿈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영국의 찬란한 미래는 더 정당하고 확실한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스페인의 운명을 예고하는 Seneca의 세계관과 영국의 궁극적 승리를 확신케 해 주는 Vergil적 세계관, 이 두 세계관이 이 작품 안에서 일으키는 충돌은 작품 밖의 세계에서 스페인과 영국이 만들어 내는 충돌의 재현인 것이다. 스페인이 지옥으로부터 분출하여 현재를 오염시키고 미래를 집어삼키는 과거의 악령이라면, 영국은 황금 가치를 들고 하계로 내려가 과거의 명령을 달래고 이용하여 영원한 제국을 건설하는 Aeneas에 비견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더욱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이 Hieronimo의 무언극이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둘 다 영국에 정복되는 것을 보여 주는 이 무언극은 영국이야말로 타락한 스페인에 대한 진정한 Revenge임을 보여 준다. 스페인에 대한 저주를 통해 영국의 선민 의식이 정당화되는 동시에 그 선민 의식에 바탕을 둔 영국의 제국주의적 꿈이 표현되는 것이다. 사실 영국의 제국주의적 꿈이야말로 영국의 반스페인주의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다. 스페인에 대한 영국인들의 감정에는 종교적 두려움뿐 아니라 스페인의 제국주의적 야심에 대한 두려움과 경쟁 의식이 함께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의 반천주교주의가 국가주의와 함께 한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거라면, 영국의 반스페인주의는 스페인의 제국주의적 위협에 대한 반응인 동시에 영국인들 자신이 가진 제국주의적 꿈의 간접적인 표현이었던 셈이다. 요컨대 반천주교주의를 정당화해 줬던 계시록적 역사관의 언어는 이 작품에서도 종교와 국가를 매끈하게 이어 주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스페인 왕실의 부패와 반그리스도적 속성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스페인 왕조와 왕국이 한꺼번에 붕괴하는 이 작품의 계시록적 결말이 잘 보여 주듯이 말이다.

결국 극장에 모인 관중이(이 작품이 씌어진 1580년대 후반에서 1590년대 전반의 스페인 함대 격퇴 전후의 관중이 그러했듯이), 이 작품을 보면서 “그래, 우리 나라에서는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없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조

국에 대한 자긍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그들에게 이 작품은 결코 전복적인 텍스트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영국의 현실이 그런 애국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이들 또한 영국이 아니라 더 궁극적인 의미의 국가, 즉 신의 국가를 조국으로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이들이 드디어 신의 뜻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오직 천주교 신자나 스페인 사람들만은 아니라는 상식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이들의 반스페인주의는 조국을 겨냥하여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급진적 개신교가 되었고, 종교 개혁의 강화를 요구하는 청교주의로 변화하였으며, 혁명과 국왕 시해도 불사하는 공화주의로 이어졌고, 새로운 나라 아메리카를 건설하러 떠나게 만든 그 개척 정신을 탄생시켰던 것이다. Elizabeth 말년과 James 시대에 씌어진 르네상스 비극과 Milton의 선동적 책자 모두 그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태어났던 것이다. 그러나 그건 모두 스페인이라는 존재가 더 이상 생존에 위협을 줄 수 없었을 때나 반스페인주의로 무마하기에는 영국의 내적 불안과 갈등이 너무 심각할 때나 가능해지는 이야기이고, 이 작품이 씌어진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다. 아니, 1588년에서 1590년대 초 영국의 국기(國技)는 스페인 때려 잡기였다. 영국의 반스페인파는 주전파였고, Sidney, Drake, Raleigh, Essex 모두 스페인 잡는 영웅이었다. 요컨대 기억해야 할 것은 스페인 함대의 격퇴, Cadiz 약탈, 스페인의 보물선 노략질하기 등은 모두 스페인에 대한 “black legend” 퍼뜨리기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6. *Henry VIII*와 1600-1610년대의 반스페인주의

Elizabeth 여왕이 사망하고 James 1세가 등극하기 전의 몇 년은 영국의 내적 불안이 극도로 고조된 시기였다. 전쟁에 흉년이 겹쳐 경제적인 위기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정권 말기적 현상이 모든 것을 얼룩지게 하고 나라를 혼돈으로 몰아갔기 때문이다. ‘스페인’이라는 주문으로 ‘스페인 함대’ 시대에 화려하게 분출하였던 반스페인주의와 애국주의를 되살리고 시계를 거꾸로 돌려 Elizabeth 시대 최고의 전성기를 다시 한 번 만들어 보려는 Essex의 노력이 결

국 시대 착오적인 영웅주의로 끝나고 만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Essex가 사형대의 이슬로 사라진 1601년 후에도 정치적 불안은 계속되었다. 여왕이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은 데서 오는 혼란이 스페인의 공주가 영국의 왕위 계승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는 공포를 조장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종교와 국가가 같은 운명체일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증명해 주는 현상이었다. 그러나 이 어두웠던 시기의 경험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고, Elizabeth 여왕은 스페인 함대 격퇴를 전후한 기간인 영국 최대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자리잡아 갔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향수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이유는 Elizabeth 여왕과 스페인 함대 격퇴가 상징하는 반스페인주의와 애국주의가 James 1세의 외교와 종교 양면에서의 유희 정책을 비판하는 효과적인 도구라는 점에 있었다.

개신교도인 James 1세의 등극으로 Elizabeth 여왕 말년을 어렵게 했던 후계자 위기는 진정되었지만, 영국인들이 James에게 걸었던 희망이 1년이 채 안 돼 실망으로 변했던 게 문제였다. James는 왕이 되자마자 스페인과 평화 조약을 맺었고, 그의 종교 정책은 친천주교적, 친교황적이라는 의심을 샀으며, 그의 궁정은 낭비와 성적 타락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었고, 그의 정치는 Tacitus/Machiavelli적 궁정 정치에 비견되었다. James와 의회를 한꺼번에 폭파하려는 Gunpower Plot이 천주 교회의 국제적 음모라는 설이 유포되는가 하면, James의 대신 중에는 스페인 대사 Gondomar에게서 보수를 받으며 천주 교회의 재건을 도모하는 자가 있다는 설도 전해져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기도 했다. 개신교 영국의 운명이 다시 한 번 경각에 달린 것처럼 위협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제 2의 Constantine 대제요 불굴의 개신 교회 옹호자로서의 Elizabeth 여왕의 이미지는 James의 친스페인, 친천주교 평화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도구가 되었던 것이다. Elizabeth 여왕의 엄숙하고 검소한 궁정과 전쟁 준비 태세는 개신교 옹호 정책과 연결되어 James 궁정의 성적, 도덕적 타락과 친스페인 정책을 평가하는 준거틀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Elizabeth는 James에 대한 반대 이미지를 제공한 셈이다.

James의 친스페인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분출한 반스페인/반천주교주의

는 극장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시대 최고 인기작 중의 하나였던 Thomas Heywood의 *If You Know Not Me, You Know Nobody, Part 1*은 공주 시절의 Elizabeth를 개신교의 성녀로 그리고 있으며, Thomas Dekker의 *The Whore of Babylon* (1606-1607)은 성숙한 여왕 Elizabeth를 개신교의 수호자로 그리고 있다.²⁹⁾ Dekker가 Webster와 함께 쓴 *The Famous History of Sir Thomas Wyatt* (ca. 1602-1607)도 Elizabeth가 즉위하기까지의 사연을 담은 극이다. 모두 Elizabeth 여왕을 추앙하고, 1588년을 영국 역사의 정점으로 제시하며, James에게 반스페인 정책을 요구하는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Drayton, Hathway, Munday, Wilson, 그리고 Dekker의 공저 *Sir John Oldcastle* (1599)이나 *Thomas Lord Cromwell* (4절판본; 1602-1613), Samuel Rowley의 *When You See Me You Know Me: or The Famous Chronicle History of King Henry the Eight, with the Virtuous Birth and Adventurous Life of Edward, Prince of Wales* (1603-1605) 등은 Henry 8세를 다루면서 종교 개혁 초창기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열거한 Elizabeth 여왕에 대한 작품군과 초점을 달리하지만, 모두 현재에 대해 발언하기 위해 Elizabeth 여왕 즉위 초에 문제시되었던 것을 다시 문제 삼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당연한 일이지만, 이들 작품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친 것은 영국 개신교회의 새로운 경전, 즉 Foxe의 *Actes and Monuments*였다. 물론 반천주교주의와 선민 신화는 Foxe가 풀이하는 영국 역사의 핵심적 주제려니와, 이들 작품이 중요시하는 것도 개인의 운명이 아니라 영국의 운명이다. 예컨대 Heywood의 작품이 Elizabeth의 왕위 등극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Elizabeth 개인의 승리라기 보다는 개신교 영국의 승리요, 진리의 승리인 것이다. Dekker의 작품에서도 교황과 교황과 스페인이 “암살”하려는 것은 Elizabeth라는 개인이라기 보다는 그녀와 함께 되살아난 “Truth”이며, 그녀가 대표하는 영국이라는 나라 전체다. 종교 개혁을 재점검하는 작품들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예컨대 Rowley의 작품에서도 Katherine Parr와 Gardiner, Wolsey의 대결 장면은

29) 1605년에 간행된 이 작품은 *Part 2*를 써야 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을 뿐 아니라 1641년에 극장이 폐쇄될 때까지 여덟번 인쇄되었다.

반천주교주의적 입장을 전달하지만, 이 연극의 일차적 강제는 어디까지나 왕, 국가, 개신 교회라는 이익 공동체에 놓여 있다. 이 작품이 개신교 왕 Edward 6세의 성장에 많은 관심을 할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들 작품의 관심이 어디까지나 영국의 운명에 있는 만큼, 반천주교주의와 반스페인주의는 그 자체로서 제시되는 게 아니라 국가라는 맥락을 통하여 제시되고 있다. 교황에 대한 충성이 국왕에 대한 충성과 함께 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If You Know Not Me*에서 Mary와 Philip의 결혼이 영국을 스페인으로 만든다는 대사는 영국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각본이었다. 따라서 거기서 발생하는 우국 충정은 동시에 James의 친스페인 외교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의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작품이 다른 한편으로 행하고 있는 것은 종교 개혁기와 Elizabeth 여왕 시대의 역사를 쓰는 일이었다. 지나간 중요한 사건들을 현재의 눈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Foxe적 역사의 손길을 확인하는 일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 작품은 영국의 종교 개혁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역사 쓰기의 일부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 1613년에 씌어진 Shakespeare의 *The Famous History of the Life of King Henry the Eighth*는 이런 작업에 속한다. 이 연극은 영국 개신교도들의 희망이고 반스페인 정책의 옹호자였던 왕세자 Henry가 급사한 지 1년 후, 그리고 Elizabeth 공주가 Calvin과 선제후 대영주(the Elector Palatine) Frederick과 결혼한 지 몇 개월 후에 씌어졌다. 예수회 수사들이 Henry를 독살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시정에 번지고 제 2의 스페인 함대가 결성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면서 반천주교/반스페인주의와 국수주의적 감정이 한참 고조된 가운데 있었던 Elizabeth 공주와 선제후 대영주의 결혼은 유럽의 개신교 연대의 강화를 의미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졌고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 작품은 이 한껏 고조된 반천주교/반스페인주의와 애국주의를 Shakespeare가 어떻게 갈무리하였는지 보여 준다.

Elizabeth 여왕과 James의 찬란한 치세에 대한 Cranmer의 예언으로 끝나는 이 작품은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종교 개혁을 국가라는 맥락에서 해석하고, 그 역사를 Elizabeth와 James라는 결말에 맞춰 놓고 있으며, Foxe적 개신교

옹호에 발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Shakespeare는 반천주교주의나 반스페인주의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거나 그런 집단 정서를 유발하는 데 중점을 두지 않는다. 오히려 관심의 초점은 절대 군주제의 탄생 과정과 종교 개혁이 얼마나 밀착된 과정이었는지 보여 주는 일에 가 있다. Shakespeare는 종교 개혁뿐 아니라 정치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공적인 차원 외에도 언제나 '개인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Shakespeare는 종교와 국가의 넥서스를 점검하면서 동시에 이 모든 관계의 근원에 있는 개인적 동기에 차분하고 분석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의 이런 특성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Shakespeare가 Holinshed(1587)와 Foxe(1563), Hall(1550), Speed(1611) 등의 기록을 거의 그대로 사용했다든가 Rowley의 *When You See Me, You Know Me*나 *Cardinal Wolsey*, 또는 Chettle, Munday, Drayton, Smith 공저의 *The First Part of Cardinal Wolsey* 등 현존하지 않는 작품들을 출발점으로 사용한 부분이 많다는 점에 기인하기도 한다.³⁰⁾ Shakespeare가 이들 작품에 의지하면서도 그들의 관심사를 좀 더 끌고 나아간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 작품에서 Shakespeare는 Henry가 지상권을 행사하는 절대 군주로서 '성장'하는 것과 영국이라는 나라가 로마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개신교 국가로 '성장'하는 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아주 근본에서부터 정치와 종교를 왕과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관계라는 맥락에 위치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Henry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 세계의 특성을 잘 알게 되어 '나쁜' 신하들의 장난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의해 행동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이 곧 영국을 외국의 간섭으로부터 해방하는 시점이 되는 것이다. 이 극의 초반에서는 Wolsey의 독단이 영국을 프랑스와의 전쟁 직전으로 몰고 가지만, 이 극이 끝날 무렵에는 Wolsey는 제거되고 Henry의 지상권은 확실해지며 영국은 Cranmer의 입을 통해 찬란한 장래를

30) Geoffrey Bullough, ed., *Narrative and Dramatic Sources of Shakespeare* (London: Routledge, 1957-75), vol. 6, pp. 433-510과 John Margeson 편 *New Cambridge Shakespeare Series*의 *King Henry VIII* (Cambridge: Cambridge UP, 1990), pp. 14-15 참조.

보장받는다. Henry와 영국의 성장이 하나의 과정이라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Shakespeare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Henry의 종교 개혁이 교리의 문제라기 보다는 Henry의 절대 군주로서의 지상권 확보 과정의 일부라는 사실이다. Shakespeare는 종교 개혁에 이르는 Henry의 길이 일련의 자기 주장 행위로 이어져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Henry는 왕비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총신으로부터의 독립을 구하고, 교회의 지배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며, 교황으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고, 끝내는 신하들의 자문으로부터도 독립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다. 이 과정을 점점하는 작업이 Henry의 절대 군주로서의 지상권 주장이 결국 Henry의 자기 의지 주장일 뿐 아니냐는 의심을 낳을 수 있다면, Shakespeare는 그것을 Cranmer의 예찬으로 재빨리 봉쇄해 버리고 만다. Shakespeare는 Henry의 종교 개혁의 ‘개인적’ 차원을 보여 주면서도 그 ‘개인적’ 차원을 절대 군주의 지상권에 포함시킴으로써 개인성이 자의성일 가능성은 차단해 버리는 셈이다.

이 점에 대해 Camille Wells Slight는 개인성이라는 말을 “양심”이라는 말로 바꾼 다음, 이 작품이 국가적인 종교 해방의 문제보다도 Henry의 개인적 양심의 자율성 주장을 더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주장한다.³¹⁾ Henry의 주장은 신과 개인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덕적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외적 권위가 아니라 개인의 양심에 의지해야 한다는 개신교의 교의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 작품은 Henry의 이혼이 종교적 양심의 문제라는 Henry의 말에 상당한 무게를 실어 주는 편이다. 그러나 Shakespeare는 Henry의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드는 장치 또한 마련해 놓았다. 무대 위의 인물들이 Henry의 양심 운운을 곧바로 조롱할 뿐 아니라 이혼 재판은 Henry가 Anne을 만난 후에 열렸으며, Wolsey에 대한 Henry의 태도 역시 속임을 당하는 사람의 모습보다는 교묘한 조종자로서의 면모를 강하게 풍기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Old Lady와 Anne Bullen의 대화 장면은 Anne의 순수성 또한 의심스러운 것으로 만들고 있다. 게다가 이 작품에서 가

31) Camille Wells Slight, “The Politics of Conscience in *All Is True* (Or *Henry VIII*),” *Shakespeare Survey* 43 (1991): 64.

장 고결한 인물로 묘사되는 사람은 뜻밖에도 Katherine이다. 마치 Shakespeare가 Henry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마음을 정할 수 없는 듯한 형국이다.

이런 식의 균형 잡기는 천주 교회에 대한 Shakespeare의 태도에서도 발견된다. 반천주교주의가 곧장 반스페인주의로 번역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프랑스에 대한 산발적인 풍자 외에는 외세에 대한 두려움이나 혐오로도 발전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작품의 가장 강한 반천주교적 정서는 Wolsey에 대한 묘사에서 발견된다. Wolsey의 교만, 모략, 술수, 축재, 배반이 열거됨과 동시에 그가 궁극적으로는 교황의 대리인이라는 점이 지적된다. Anne Bullen을 의도적으로 Henry에게 소개하고 Katherine과 이혼할 것을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Henry와 Anne의 결혼은 반대하는데, 그 이유가 Anne의 Luther교적 경향 때문이라는 점 또한 지적된다. 요컨대 Shakespeare가 지적하는 Wolsey의 '개인적' 부패 사례들은 Wolsey의 부패가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문제이며 천주 교회의 타락을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해 준다. 그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 극 마지막 장면에서 Cranmer가 발하는 영국의 장래에 대한 예언은 Wolsey와 Wolsey가 대변하는 로마 천주 교회에 대한 가장 무서운 판정을 담고 있는 셈이다. Wolsey의 실각과 죽음은 영국의 궁극적 승리를 예언하는 Cranmer의 대사를 통해 천주 교회의 타락에 대한 신의 징벌을 예고하는 사건으로서 인류 역사 전개에 대한 계시록적 서사의 일부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Cranmer의 예언이 반천주교적 정서를 반어법적으로 표현한다 하더라도 그 예언이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지는 궁극적으로는 관중의 태도에 달려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예언을 하는 Cranmer 자신도 Mary 여왕의 치하에서 처형되며, Anne 또한 3년도 채 못 돼 간통죄로 처형되는 역사의 곡절을 당대 관중 모두 구구절절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작품이 정말 기대고 있는 것은 관중이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역사적 사실과 이 작품이 보여 주는 '사실'의 그 뚜렷한 차이가 Shakespeare가 관중에게 주목하기를 요구하는 공간인 것이다. 역사를 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자신의 역사 다시 쓰기가 어떤 전제 아래에서 이루어

지는지를 보여 주는 셈이다. 종교 개혁이 Henry의 개인적 의지의 주장 과정의 산물이기도 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듯이 종교 개혁에 대한 역사서들 역시 역사가들의 개인적 입장의 주장일 수도 있으며, 자신이 그리는 역사 역시 자신만의 개인적인 역사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이 작품은 종교 개혁의 선전전의 도구였고 그 결과인 역사서에 주석을 다는 작품, 반스페인주의라는 집단 정서의 근원을 분석하는 작품, 종교 개혁과 함께 조장된 반천주교/반스페인주의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는 작품, 그런 의미에서 반스페인주의의 산물이자 동시에 그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7. *La cisma de Inglaterra*와 ‘스페인과의 혼담’ :

스페인의 반영국 정서

영국의 반스페인주의를 논의의 맥락으로 삼을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의문은 스페인의 대(對)영국 정서다. ‘스페인과의 혼담(the Spanish Match)’을 둘러싸고 영국인들의 반스페인 정서가 다시 한 번 폭발한 1620년대 초에 씌어진 Pedro Calderón de la Barca의 *La cisma de Inglaterra*는 바로 그런 의문에 대한 대담의 일부를 마련해 준다.³²⁾ 당대 영국과 스페인이 서로에게 느끼는 적대감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Henry 8세의 이혼과 종교 개혁을 소재로 삼아 그 동인과 의의를 분석, 점검하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이 작품의 제작 연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분분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Calderón의 초기작으로서 Philip 4세 내외를 위해 1627년 왕궁에서 공연한 작품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즉 당대 영국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에 대한 Calderón의 문학적 반응이라는 생각이다. 1620년대 초의 영국과 스페인 관계

32) 이 작품의 텍스트로는 스페인어-영어 대조본이며 Kenneth Muir와 Ann L. Mackenzie가 공역한 *The Schism in England (La cisma de Inglaterra)*, Hispanic Classics Series (Warminster, Wilts.: Aris & Phillips, Ltd., 1990)를 사용하였다.

는 ‘스페인과의 혼담’이라는 매우 감정적인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영국의 왕세자 Charles와 스페인 왕 Philip 3세의 딸 Marla 공주를 결혼시키자는 이 혼담은 Philip 3세 때부터 이미 James 1세와의 사이에서 오간 이야기였지만, 당시까지 별 성과 없이 계속 질질 끌여오던 중이었다. 물론 영국의 대(對)천주교회 정책을 수정하라는 스페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가 이들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교황의 특별 허가가 필요하였던가 등 이 혼담의 성사를 방해하는 요소가 없었던 건 아니었다. 그러던 중, 1623년 봄에 Charles 왕세자가 Buckingham 공작을 대동하고 갑자기 Madrid에 나타난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대단한 사건이었다. 따라서 Charles가 그곳에서 Marla 공주의 구혼자로서 머물렀던 몇 달 동안 영국과 스페인의 국민적 관심은 온통 이 혼담의 성사 여부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³³⁾ 이 결혼 문제는 영국에서는 물론 스페인에서도 공포에 가까운 강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혼담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Charles와 Marla의 경우가 Henry 8세와 Catherine of Aragon의 경우와 놀랍게 비슷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Catherine처럼 Marla 공주 역시 독실한 천주교 신자고, Henry 8세처럼 Charles도 형이 급사하는 바람에 왕세자가 된 둘째 아들이라는 것이었다. 결국 이 혼담은 결렬되었고 양국 역사에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정치적 여운을 남겼다. 1623년 왕위에 오른 Charles는 프랑스의 공주 Henrietta Maria와 결혼하였고, 1625년에는 스페인의 Cadiz를 침략했으며, 1627년에 이르러서는 영국을 스페인과의 사실상의 전쟁 상태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 스페인의 반영국 정서는 영국에 관한 연극, 특히 Henry 8세가 행한 ‘교회 분열’ 행위와 Elizabeth 여왕이 스코틀랜드 여왕 Mary를 처형한 사건을 극화한 연극들에서 잘 나타난다. 이 두 사건은 스페인 사람들에게는 영국이 일으킨 국제적 말썽 중에서도 가장 고약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Calderón의 *La cisma*는 당대 스페인의 이런 반응과 맥을 같이 한다.

Calderón이 이 극의 자료로 사용한 역사서는 Philip 4세의 독서 목록에도 포

33) Calderón이 Charles 왕세자를 위한 연회에 참여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미 1623년에 *Amor, honor y poder* (*Love, honor, and power*)를 지어 Charles 왕세자를 칭송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함된 바 있는 Padre Pedro Ribadeneira의 *Historia eclesiástica del cisma del reino de Inglaterra* (1588)의 제 1권이였다.³⁴⁾ Ribadeneira는 Henry의 이야기에서 이단은 단호히 처벌해야 하며, 난잡한 여자는 경계해야 하고, 못된 총신에게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등 군주의 치세와 관련되는 교훈을 이끌어 낸다. Calderón이 그린 Henry도 기본적으로 Ribadeneira가 지적하는 도덕적인 약점을 가진 왕의 모습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Calderón은 Henry를 외적인 영향력에 흔들리는 유약한 왕으로 그린다기 보다는 심각한 자기 분열에 빠진 인물로 형상화하고 있다. Henry가 만들어 낸 ‘교회 분열’은 결국 Henry 자신의 비극적 내적 분열의 결과라는 해석인 셈이다.

그러나 Calderón이 만들어 내는 Henry의 비극은 현대적 의미의 심리적 분열에서 태어나는 비극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Henry의 내적 분열은 *auto sacramental*적 골격을 통하여 종교적인 맥락으로 좁혀져 있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형식화되고 비개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³⁵⁾ Calderón은 Henry의 영혼이 “모든 인간(Everyman)”과 같이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서로 대결하는 장(場)임을 보여 줌으로써 Henry가 경험하는 분열에 *auto*적 우의성을 부여한다. 그래서 Henry를 종교 개혁으로 이끄는 Luther, Anne Boleyn, Wolsey에게도 역시 Henry의 영혼을 타락으로 이끄는 마귀의 대리인들이라는 우의적 역할을 할당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Calderón은 Wolsey와 Anne을 Henry에게 가해지는 정치적 영향력으로 해석한다기 보다는 종교적 힘, 특히 마귀의 유혹적 힘으로 해석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Calderón은 Henry의 종교 개혁을 Shake-

- 34) Philip 4세가 이 작품을 직접 주문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Philip 4세의 궁정에는 대단히 종교적인 열정의 바람이 불고 있었고, 왕 자신도 스스로를 “Philip 대왕(the Great)”이니 “진정한 신앙의 수호자(Defender of the True Faith)”로 자부하고 있는 판이었다.
- 35) 그의 유명한 논문 “Henry VIII in Shakespeare and Calderón: An Appreciation of ‘La cisma de Inglaterra,’” *MLR* 43 (1948): 327-52에서 Alexander A. Parker는 Calderón은 Henry 8세의 모습에서 막중한 책임 아래 흔들리는 비극적 인간의 상징을 발견했다고 주장한다. *Auto sacramental*에 대해서는 Meiveena McKendrick, *Theatre in Spain, 1490-1700* (Cambridge: Cambridge UP, 1989), pp. 238-60을 참조할 것.

speare처럼 정치적인 맥락에서 읽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영혼이라는 초역사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로 환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점은 첫 장면부터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작품의 첫 장면은 꿈에서 본 환영에 완전히 사로잡힌 Henry를 보여 주는 것으로 시작된다. 꿈에서 깨어난 Henry에게 편지 두 장이 전달된다. 하나는 Luther에게서, 다른 하나는 교황에게서 온 것인데, Henry는 Luther의 편지를 발로 밟으려다 실수로 오히려 교황의 편지를 밟게 된다. Henry의 설명에 의하면, Luther의 분파 행위를 비난하는 책자 *A vindication of seven sacraments, against Martin Luther (Assertio septem sacramentorum adversus Martinum Lutherum)*를 쓰다가 깜박 잠이 들었는데 Anne Boleyn의 환영이 나타나서 그 책자에서 결혼의 신성함을 옹호하는 대목을 지우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Calderón의 역사 해석은 도덕극적 성격을 띠고 인물은 *auto*적 알레고리를 향한다. 이 경향은 이 연극의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된다. 마지막 장면인 Mary의 왕위 계승권 확인 서약식에서 Henry는 다시 “신앙의 수호자”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고, 그 옆에 자리잡은 Mary는 트리엔트 공의회(the Council of Trent)가 표방한 바와 같은 공격적 천주 교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뿐 아니라 그들의 발 밑에는 그들에 의해 처형된 개신교도 Anne의 시체가 놓여 있다. 사실 *auto sacramental*은 반종교 개혁(Counter-Reformation) 초기 스페인에서 개신교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것으로서, 강한 반개신교주의와 천주교 교의에 대한 공격적인 지지는 이 장르의 특성이었다. 그렇게 보면 개신교도들은 악마의 대리인들이라는 트리엔트 공의회의 교의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La cisma*의 시작과 끝은 이 작품을 *auto*적 전통 속에 확고히 위치시키는 셈이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 작품의 *auto*적 면모는 Henry를 둘러싼 인물들을 선악의 화신으로 양분하는 데서 특히 두드러진다. 따라서 선악의 대결장인 Henry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열은 그의 선악 구별 능력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능력을 확고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선악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규정된다. 이 작품을 시작하는 대사에서 Henry는 Anne을 처음에는 “divine spirit, beauteous image”라고 부르

지만 끝이어서 “sun / In eclipse, lustreless star, beware, / For you offend the sun indeed, in seeking / To blot out such great splendour” (1-4)라 고쳐 부르고 있다. Anne은 진리의 빛을 가리는 어둠의 환영인 것이다. 이 부분은 Henry가 나중에도 거듭 강조하는 바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Calderón은 Catherine과 Henry의 결혼이 합법적이라는 점에 관한 한 추호의 의심도 남기지 않는다. Henry 역시 그 점을 거듭 강조할 뿐 아니라 자신의 이혼 요구의 변이 사실은 꾀변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Wolsey에게 Catherine과 이혼할 방법을 강구하라고 명령한 뒤 바로 이어지는 독백에서도 Henry는 “I must confess that I am mad and blind. / The truth I worship is the very thing / That I deny” (1623-24)라며 자신의 문제를 진단하고 분석할 뿐 아니라 Wolsey가 자신을 “꾀변”으로 “속였다” (1630)는 것을 알고 있으며, Anne에 대한 욕정이 결국 “The infernal fires that rage within my breast / has driven me, in a state of blind confusion, / To misconceive the truth and swallow lies” (1632-34)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 Shakespeare의 작품에서는 모호한 상태로 남겨져 있는 부분이 여기서는 명료하고 단호하게 “거짓말”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Henry의 모든 행동은 오직 Anne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진다. Henry의 독백에는 천주 교회가 타락했다거나 국왕의 지상권을 강탈했기 때문에 저항한다는 식으로 교리나 국가의 맥락에서 자신의 이혼과 종교 개혁 움직임을 정당화하려는 흔적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그에게 종교 개혁이란 국가적인 문제도 교리의 문제도 아니고 다만 자신의 개인적인 욕정을 달성하는 수단일 뿐이다. 요컨대 그는 언제나 선악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면서도 개인적인 욕정에 휘말리는 인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죄악인지 알면서도 죄악을 저지르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육체에 항복하며, 결국 그 죄 때문에 절망하는 비극적 인물인 것이다: “Unhappy Henry! For you damnation waits!” (2844). 요컨대 영국이 경험한 비극은 인간 Henry의 비극에 기인했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Shakespeare가 종교 개혁이 종교와 별로 관계 없는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동기들이 서로 부딪친 결과 생긴 것일 수 있음을 보여 줬다면, Calderón은 역사

를 인간의 개인적 영혼을 둘러싼 선악의 대결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Shakespeare가 역사를 정치로 풀이한다면 Calderón은 도덕으로 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Calderón의 *auto*적 역사 해석법은 역사를 지극히 개인적인 도덕의 차원에서 읽는 것 같으면서도 그 개인적 도덕의 문제를 개인을 넘어선 초월적이고 비역사적이며 우주적인 구도에 집어 넣는다. Calderón이 제시하는 구도 속에 놓고 볼 때 Henry는 자신의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저지르는 인간일 뿐 아니라 것처럼 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운명을 우의적으로 예시하는 초월적 인간이다. 따라서 Henry라는 개인이 또한 영국의 국왕이기도 하다는 ‘우연한’ 사실만이 Henry의 개인적 운명이 갖는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의의를 보장해 준다. Henry 개인의 비극을 천주 교회의 비극적 분열과 영국의 국가적 비극으로 ‘번역’해 주기 때문이다. 결국 Calderón의 구도 속에서 종교 개혁이라는 사건은 “모든 인간”의 유약함이 표현된 하나의 예가 되는 것이다. Anne의 묘사는 바로 이런 식의 *auto*적 논리선상에서 이루어진다. Henry를 사로잡은 욕정은 단순한 욕정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인 것이다. Calderón은 Anne에 관한 한 동정의 여지를 남겨 두지 않는다. 원전에서 정의한 대로 Anne은 “soberbia, ambición y envidia y deshonestidad (pride, ambition, and envy and sexual immorality)”의 화신이다. Henry를 유혹한 것도 Anne이고, Wolsey와 정치적인 결탁을 하고 그를 배신하는 것도 Anne이다. 또한 Anne은 성적으로도 난잡한 여자로 그려져서 Catherine의 결혼을 파괴하고 영국을 배교국으로 몰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Henry를 만나기 이전에 Charles와 맺었던 결혼 약속을 배반하고 Henry와 결혼한 다음, 다시 그와 간통을 시도하기까지 한다. 뿐만 아니라 Calderón은 Anne에게 Catherine을 독살한 죄까지 뒤집어 씌운다. 요컨대 Calderón은 Henry가 Anne을 처형하면서 열거한 죄목을 모두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Anne이 프랑스 궁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곳 언어와 예법에 능통했으며, 애교 만점의 야심 만만한 여자였을 뿐 아니라 야심 대단한 사람들과 어울렸다는 것은 사실이다.³⁶⁾ 그러나 그

36) Anne의 언니 Mary Boleyn 역시 Henry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었으나 Anne과는 달리 정부로 머물렀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녀가 오빠와 자신의 시종을 비롯한 술한 남자와 교접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그제 사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학자들의 일관된 의견이다. 그러나 Calderón은 Anne에게 거의 마녀(혹은 Siren)적인 성격을 부여한다. 그리고 그 마녀의 종말은 마녀답게 참혹하다. 목과 몸통이 분리된 Anne의 시체는 Mary를 왕위 계승권자로 봉헌하는 장면에서 Mary가 Henry 옆의 옥좌로 올라갈 때 밟고 올라가는 발판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Mary가 지옥의 힘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다. 결국 Anne을 마녀, 음녀, 요부, 독부로 그리는 이유는 자명하다. Anne이 창녀고 마녀라면 영국의 '분파 행위'는 유약한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결과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Wolsey 추기경 또한 마귀의 대리인으로 그려져 있다. 이중성은 그의 또 다른 특징이다. Catherine에 대한 태도도 미신과 증오, 원한으로 가득 차 있다. Calderón은 원전을 바꾸어 Anne과 Wolsey가 결탁하여 Catherine을 몰아냈다는 허구를 만들어 낸다. 사실 Wolsey는 (Shakespeare가 그린 것처럼) 오히려 Henry와 Anne의 결혼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Anne이 왕비가 되기 전에 실각했기 때문이다. Wolsey가 Catherine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던 이유 또한 실제로는 Charles 5세가 교황이 되려는 자신의 꿈을 무산시켰기 때문이었는데, 이 작품에서는 Wolsey가 본 별점의 점괘 때문인 것으로 되어 있다. 뜻밖에도 Wolsey의 미신적 태도야말로 그를 몰락으로 몰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주장은 개신교도들의 반천주교적 공격에 늘 등장하는 중요한 항목 중 하나가 천주 교회의 미신적 태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무척 흥미롭다. Calderón은 Wolsey가 사이비 천주교 신자며 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귀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을 좀 더 분명히 해 주는 것이 Catherine에 대한 묘사다. Catherine은 Henry의 선한 천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Catherine은 비할 바 없이 착하고 일편단심 남편만을 사랑하는 조강지처, 현모양처일 뿐 아니라 기독교의 이상인 용서와 사랑을 구현하는 인물이다. Wolsey가 Anne에게 박해당했을 때 그를 위로해 주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그에게 박해받은 Catherine이다. Wolsey가 사이비 천주 교회를 의미한다면 Catherine은 진정한 천주 교회를 구현하는 것

이다. 더구나 짝사랑에 고민하다 죽어 가는 Catherine의 모습은 순교자적 수난의 암시까지 담고 있다. Catherine이 Anne이 독을 발라 놓은 Henry의 편지를 소중히 읽다가 독이 몸에 퍼져 죽는다는 이야기는 Catherine에게 Wolsey와 Anne의 반대 인물로서의 도덕적인 권위를 부여할 뿐 아니라, Catherine의 이야기를 마귀의 독에 침식되어 파괴된 진정한 천주 교회에 관한 우의적인 이야기로 바꿔 놓고 있기 때문이다. Calderón은 Ribadeneira의 *Historia*에서는 암시적 언급에 불과하였던 Catherine의 독살설을 취하여 그 우의적의 측면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Calderón이 만들어 낸 허구 중의 하나인 Wolsey의 자살 역시 우의적이다. 마귀가 예수에게 요구했던 바로 그 방식으로 탑에서 뛰어 내려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Wolsey의 모습은 그의 정신적 타락과 절망의 극을 표현하는 동시에 선한 힘의 승리가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이쯤 되면 사이비 천주교 신자와 마녀가 함께 작당하여 Henry를 속여 만든 종교 개혁이 무엇인지 뚜렷해진다. 영국의 '분파'는 지옥과 연결되어 있으며, 미신에서 탄생한 가짜 종교인 것이다.

사실 이런 식의 이분법적 사고는 영국의 반천주교주의의 특징이기도 하였다. 그런 사고로부터 Shakespeare가 비교적 자유로웠다는 것을 *Henry VIII*가 증언해 준다면, *La cisma*는 Calderón의 반개신교주의가 그런 이분법적 사고 방식에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잘 보여 준다. 그렇지만 이 작품이 보여 주는 반개신교주의가 곧 반영국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다. 사실 이 작품이 담고 있는 이야기가 그 자체로서 당대 스페인에 유포된 여러 소문과 질적으로 크게 다르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당대 스페인에는 Henry 8세는 괴물이고 Anne은 자기 오빠를 비롯한 수 많은 남자와 혼전과 혼후에 관계를 맺은 음녀일 뿐 아니라 심지어는 Henry의 서녀라는 소문까지도 퍼져 있었다. 그들의 딸 Elizabeth 여왕 또한 영국 사람들이 말하듯이 처녀 여왕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음란한 여자라는 게 당대 스페인 사람들의 생각이었다. 그렇지만 스페인에는 영국의 반스페인주의에 필적할 만한 범국민적 반영국 정서가 존재하지 않았다. 영국의 반스페인주의가 영국의 국가주의와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면, 스페인의 반영국 정서는 국가주의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무엇보다 종교적

인 문제였기 때문이다. 물론 1537년에 시작된 종교 재판이 반개신교적 기구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한 것도 아니었고, 1545년의 트리엔트 공의회가 선포한 공격적 반종교 개혁 작업이 언제나 종교의 영역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 두 작업 다 영국이라는 특정 국가를 스페인의 국가적 투쟁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었다. 종교 재판은 무어인(Moriscos)과 유태인(Conversos)을 다스리기 위한 대내 정치용으로 빈번히 사용되었고, 반종교 개혁 작업은 천주 교회 안에서의 개혁과 신대륙에서의 선교, 유럽 대륙에서의 종교 전쟁 등 주로 국제 정치적인 성격을 띠었다. 사실 스페인은 영국 공포증에 걸릴 감정적 필요도 여유도 별로 없었다. 그들의 관심이 영국보다는 유럽 경영에, 신세계 경영에, 이슬람 터키와의 전쟁에, 또는 자국 내의 계급 문제, 인종 문제 등에 집중되어 있었던 탓도 있고, 영국이 자신의 국가적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강한 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영국의 국가 정체성이 스페인이라는 적에 기대어 형성되었다고 한다면, 스페인의 경우는 영국이 아니라 세계의 새로운 주인이라는 정체성에, 재건된 신성 로마라는 정체성에 매달린 셈이다.

그렇게 보면 이 극의 의미를 스페인과 영국 사이의 관계라는 맥락에만 한정하여 읽을 필요도 없다고 할 수 있다. Henry의 종교 개혁을 Henry의 국왕 지상권 주장과 Wolsey의 야심,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이 한데 묶인 국제적 역학 관계의 문맥에 위치시키는 Shakespeare의 작품과는 달리, Calderón의 작품은 그런 국제적인 맥락은커녕 영국과 스페인의 관계조차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이 작품이 언급하는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는 Anne과 Charles의 관계를 드러내고 Anne의 부패를 증명하는 배경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사실 이 작품은 반영국적 발언이라기 보다는 정치 세계 일반, 특히 당대 스페인과 유럽을 지배하는 정치 논리에 대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다. 물론 Calderón처럼 Henry 8세의 종교 개혁으로부터 ‘왕이 마귀 같은 총신과 요부에게 지배되면 국가적인 비극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따위의 교훈을 끌어 내는 일이 꼭 반영국주의적 편견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예컨대 Kyd의 비극이 비극 자체의 원인을 어떤 특정한 사회의 특

정한 환경(예컨대 스페인 왕실의 부패)에서 찾고 그 원인과 자신이 속한 사회를 분리하려는 충동을 강하게 보인다면, Calderón의 역사 이해에는 타자와 아자의 구별이 없다. 다만 정치 세계의 논리에 대한 이해가 있을 뿐이다. 왕이 충신에게 속아 넘어가는 일이 그곳이 꼭 영국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니, 도대체 그런 주장의 씨앗도 찾아 보기 힘들다. 오히려 이 작품을 정치적인 연극으로 읽는다면, 이 작품은 당대 유럽 전체, 특히 스페인에 대한 Calderón의 불안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스페인 왕 Philip 3세의 충신 Lerma를 비롯하여 Philip 4세의 Olivares, 영국의 Buckingham, 프랑스의 Richelieu 등 충신(*privado* 혹은 *válido*)의 숭세는 유럽 전역에 걸쳐 거의 제도화되고 있는 형편이었다. 충신 제도(*valimiento*)는 신의 율법에 어긋나며 폭정을 가져올 뿐이라는 게 Calderón의 생각이었고, 이것은 *La cisma*뿐 아니라 나중에는 *La vida es sueño*에서도 표현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불안은 Calderón만이 아니라 Juan de Santa María(1619), Jerónimo de Zaballos(1623)도 함께 나누는 바였으며, *La Estrella de Sevilla*나 *El burlador de Sevilla* 등 1620년대의 희극(*comedias*)에도 충신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 이 작품의 원전 역시 Wolsey와 Cromwell을 충신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만한 일이다.

그렇게 보면 Henry 8세의 충신 Wolsey가 통념적인 의미의 'Machiavelli적' 인물로 규정되고 있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가 Machiavelli적 실제 정치 논리에 의해 행동하는 인물임을 잘 보여 주는 것이 Henry 8세에게 그가 주는 충고 "속마음을 감추십시오(Dissimulate)" (869)라는 말이다. Machiavelli가 이 말을 사용할 때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속임수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충고지만, Wolsey의 입을 통해 나올 때는 '그런 척하십시오(simulate)', 즉 개인의 이익을 위해 속임수를 쓸 때조차도 국가의 이익을 앞세우는 척하라는 말로 그 의미가 바뀐다. Wolsey의 이 충고는 이 작품 전반에 속속들이 스며들어 등장 인물들의 행동 논리를 이루고 있다. Henry의 이혼 요구의 변이 그러하고, Wolsey와 Anne의 행동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하며, 이 극 마지막 장면에서의 Mary의 정치적 속임수 또한 그런 논리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결국 이 작품이 보여 주는 것은 *La vida es sueño*가 보여 주는 바와 별로 다르지 않다. 여기에서도 국가라는 미명 아래 법을 희생하는 행위는 결국 사회 전체를 이기적 계산과 속임수의 파괴적 연속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Calderón은 Henry 8세의 이야기에서 총신 제도의 기반을 이루는 실제 정치 논리에 대해 자신이 느끼는 불편함을 정당화해 주는 증거를 발견한 것이다.

결국 Calderón의 작품은 자신의 세계로 다시 한 번 돌아 온다. Henry 8세의 종교 개혁에 대한 탐구가 Charles 왕자와 Marla 공주의 혼담이라는 당대 스페인인인 당면한 문제에 의해 촉발되었거니와, Wolsey와 Henry의 관계 또한 Calderón의 조국 스페인의 총신 제도 문제를 반영하는 거울의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라면 Calderón의 스페인도 영국을 종교적 또는 국가적 타자로 만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렇게 말할 때 조차도 그 정도와 성격이 영국에서 '스페인'이 담당할 적대적 타자로서의 역할과는 매우 다르다는 점을 부언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말이다.

영국을 마귀에 홀린 나라로 그린 이 연극에 당대 스페인의 관중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잘 알 수 없다. 일본과의 축구 시합에서 한국 관중이 느끼는 것과 흡사한 알 수 없는 분노와 환희가 그들을 사로잡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역사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저만큼 물러서서 선전적 이야기가 생략하고 바꾸어 놓은 실제 이야기를 기억하라고 요구한다. Shakespeare의 작품에서 Anne의 처형과 Mary의 불행하고 짝막한 집권에 대한 이야기가 삭제된 것처럼, Calderón의 작품에서도 Elizabeth의 탄생이나 Mary가 재위 중에 시도했던 천주 교회의 복원 노력이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는 이야기는 사라지고 없다. Shakespeare와 Calderón 둘 다 자신이 속한 교회의 필연적 승리를 예고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Shakespeare가 Henry의 종교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반천주교주의와 반스페인주의로 끌고 가지 않은 것처럼, Calderón 역시 Henry 개인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영국인 전체에 대한 비방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 Calderón의 작품에서 발견되는 대(對)영국 정서가 있다면, 그것은 비방보다는 영국의 비극적 운명에 대한 연민에 더 가깝다고 해야 할 것이다.

8. 결 언

영국과 스페인의 충돌에 대한 이야기는 17세기 후반까지 계속될 수 있다. 혹은 오늘날까지 계속된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다시 한 번 강조해야 할 점은 영국과 스페인의 정치, 종교, 경제적 충돌로 현상한 종교 개혁이 역사극이라는 장르를 탄생시켰을 뿐 아니라 역사에 대한 관심과 자의식을 영국 르네상스 연극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이다. 종교 개혁이야말로 Sidney가 “잡종 비극”이라고 비난한 영국 르네상스기의 연극, 그 위대한 잡종—정치와 종교, 경제 등 모든 사회적 요소가 연극이라는 문화 형태와 결합한 잡종을 만든 것이다. 그 “잡종”은 한편으로는 종교 개혁을 정당화하고 선전하고, 정착시키고 완성하는 데 기여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 개혁의 전제인 국가라는 개념, 영국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내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연극의 종교적 의미, 또는 종교라는 말이 당대에 가졌던 다원적 의미를 감안하지 않는 연구는 지극히 비역사적인 연구, 즉 이 시대가 아닌 다른 어떤 추상에 대한 연구가 될 수밖에 없다.

Literary Encounters between England and Spain : Anti-Hispanism in English Renaissance Drama

Jongsook Lee

This study responds to two great orthodoxies about English Renaissance drama. The one, established by Voltaire in the Age of Enlightenment, explains the apparent similarities between Shakespeare and Calderón and Lope de Vega of the Spanish Golden Age in terms of direct literary influence and imitation. The other, advanced and devoutly held by historicists of various persuasions in our own age, has it that English Renaissance drama as a whole constitutes a narrative of the struggle for hegemony waged between the power élite based at the absolutist court and the new one emerging from the capitalist society. Both theories try to place English Renaissance drama in the larger context of the literature and politics of early modern Europe. Interestingly enough, however, they both fail to take into account the fact that the Reformation, more than any other historical event of the time, changed the configuration of the cultural and political map of Europe. This study, then, seeks to engage scholarly attention in examining the ways in which the Reformation dictated the form and content of English Renaissance drama.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e story of the Reformation as the shaping power of English Renaissance drama is also the story of religious and cultural encounters and conflicts between England and Spain. Out of the encounters between these two nations grew the new genre of historical drama, which Voltaire seized upon as evidence of Spanish influence on English Renaissance drama. Indeed, English drama of the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 as a whole can be characterised as a response to the Reformation, and the political and religious issues these events generated. The first English history play, John

Bale's *King Johan*, was also the first dramatic engagement in a propaganda war against the Roman Catholic Church. Bale reads the Reformation as an English triumph over the evil and corrupt Rome, an event inscribed in the Apocalyptic vision of a universal history, and which was prefigured in King John's struggle to protect English independence from papal control and invasion in the thirteenth century. Bale's reading goes a long way toward the creation of the myth of the Protestant England as the elect nation persecuted by an army of Antichrists. Catholic Spain and its threats to England were interpreted within the framework of this narrative of the elect nation. Spain became the chief target of the English Anticatholic campaign, and Anticatholicism interchangeable with Anti-Hispanism. The twin themes of the elect nation and Anticatholicism/Anti-Hispanism, born in response to the Reformation, proved to be the major impetus in the inception of English Renaissance drama and its development after *King Johan*.

The project of rewriting the history of the Protestant England as God's elect nation initiated by Bale continued in the harrowing years of the reign of Queen Mary. The Geneva Bible and Foxe's *Book of the Martyrs*, both begun, and partly completed, in exile on the continent, are the culminating expressions of the twin themes of the elect nation and Anticatholicism/Anti-Hispanism. And, as such, they set the ideological context of the plays staged in England at every critical point in the Anglo-Hispanic relationship during the period between 1558 and 1660. Thomas Kyd's *Spanish Tragedy*, the work that opened a long and brilliant career of the revenge play in the English literary Renaissance, for example, can be read as a response to the threat of an imminent invasion by the Spanish Armada in the 1580's. Shakespeare's *Henry VIII* can also be read as a response to the 1613 explosion of Anti-Hispanism triggered by the sudden death of Prince Henry, champion of the international Protestant alliance against Spain, and the rumour of a second invasion of the Spanish Armada. In this work, Shakespeare went directly to the originary moments of the English Reformation, providing a

remarkably balanced analysis of the forces, both political and personal, that impelled Henry VIII to what amounted to a radical reformation of the church. *Henry VIII*, as such, affords an illuminating commentary on the Anticatholicism/Anti-Hispanism that played a decisive role in the shaping of English national identity in the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

Calderón's *La cisma de Inglaterra*, written in the early years of the 1620's when the projected match between Prince Charles and Infanta María threw England into yet another bout of Anti-Hispanic hysteria, provides an interesting glimpse at Spanish reactions to the English Reformation. Calderón turns the national drama of the English Reformation into the personal tragedy of Henry VIII, placing his attention squarely on the personal motives behind Henry VIII's divorce from Catherine, and his eventual rebellion against the Roman Catholic Church and papal authority. In his hand, Henry VIII becomes an Everyman fallen from the grace of God, seduced by the devil in the beautiful shape of Anne Boleyn, and England a victim led astray by such a king: England is an object of pity rather than of hate. Calderón's play shows in little the chief difference between Catholic Spain and Protestant England in regarding the English Reformation. Whatever the Spanish felt about England, very little of it seems to have added up to anything comparable to the Anti-Hispanism of the English in its virulence and its significance in the shaping of national identity. The Spanish continued to dream their imperial dream of the *dominus mundi*, little perturbed by the real power of the island country's Anti-Hispanism so unmistakably demonstrated in the defeat of their Armada in 1588.